

文學碩士 學位論文

울진 덕천리 고분군을 통해 본
신라의 동해안 경영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朴 命 顯

2019年 6月

文學碩士 學位論文

울진 덕천리 고분군을 통해 본
신라의 동해안 경영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朴 命 顯

2019年 6月

울진 덕천리 고분군을 통해 본
신라의 동해안 경영

指導教授 姜 奉 遠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朴 命 顯

朴命顯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정병모 

審査委員 임영애 

審査委員 강봉원 

慶州大學校 大學院

2019年 6月

<목 차>

I . 서론.....	1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사.....	7
II . 덕천리 고분군의 위상.....	11
1. 울진 지역의 고분군.....	11
2. 덕천리 고분의 단계설정.....	26
3. 부장품의 위계.....	33
III . 신라의 동해안 경영과 울진.....	42
1. 해로의 거점으로서의 울진.....	42
2.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울진.....	54
IV . 맺음말.....	60
참고문헌.....	62
국문초록.....	66
Abstract.....	68

< 표 목 차 >

<표 1> 울진지역 지구별 신라고분 분포현황.....	21
<표 2> 울진 덕천리 고분군의 유구 속성표.....	29
<표 3> 울진 덕천리 고분 면적에 따른 위세품의 증가율.....	30
<표 4> 울진 덕천리 고분 출토 고배 편년.....	32
<표 5> 경북 및 동해안 일대 출토 신라식 관식.....	35
<표 6> 울진 덕천리 고분군 출토 신라식 관식.....	36
<표 7> 울진 덕천리 고분 29-1호분 출토 과대와 모자곡옥.....	38
<표 8> 국내 출토 모자곡옥과 울진 덕천리 고분군 출토 모자곡옥.....	38
<표 9> 울진 덕천리 고분 1지점 5호 석곽묘 고배와 소가야계통 토기(고배)..	40
<표 10> 울진군 성류굴 내 경진년 명문.....	50
<표 11> 안압지 출토 185호 목간.....	51

< 도 면 목 차 >

<도면 1> 울진 덕천리 고분군 유구배치도.....	13
<도면 2> 울진 고분군의 입지.....	14
<도면 3> 장식대도 시기별 변화양상.....	15
<도면 4> 울진 지역의 신라고분군.....	22
<도면 5> 울진 지역의 고분군 위상 도식화.....	23
<도면 6> 울진 덕천리 고분군 삼국~통일신라시대 단계.....	31
<도면 7> 동해안지역의 실직곡국과 음즙벌국의 후보지.....	47
<도면 8> 동해안 지역의 해류모식도.....	52

I. 서론

울진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의 북단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동예(東濊)의 본거지였다. 동예는 고조선이 멸망할 무렵 등장하기 시작한 소국 가운데 하나이며, 동해안과 강원도 내륙을 중심으로 존재한 부족의 총칭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에도 전하는바 ‘북명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濊)왕의 도장을 얻어 임금에게 바쳤다’고 한다.¹⁾

이 세력은 한사군인 낙랑의 통제를 받았고, 2세기 후반 경에는 고구려에 예속되어 소금과 해산물 등을 지속적으로 공물로 바치게 된다. 동예는呂나凸자형 주거지로 대표되는 춘천 중도식(中島式) 문화이며, 삼국시대가 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에 휩쓸린다. 세 나라의 변방에 위치하였지만 고구려는 백제와 영서지역을 놓고 각축하였던 것 같고, 영동지방을 놓고는 신라와도 각축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誌)에는 ‘울진군(蔚珍郡) 본고구려우진야현(本高句麗于珍也縣)’이라 하여 울진지역이 일시적이거나 고구려에 편입된 것을 적기하고 있다. 한편 영서지역의 대표적인 중심지인 춘천과 원주, 그 가운데 원주 법천리에서는 청동초두나 양모양의 청자 등 중국계문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백제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영동지역에서는 신라의 영향은 일찍부터 감지된다. 신라는 6세기 무렵부터 조직화된 군대를 지방에 주둔시킨다. 그리하여 군단을 중심으로 지방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군주제(軍主制)는 지증왕 5년(505) 처음으로 실직주(悉直州)에 파견한데서 비롯되었다. 뒤이어 512년에는 하슬라에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하여 그 지역을 통제하였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줄 문헌자료는 제한적이며, 고고학자료 역시 빈곤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울진에 대한 연구의 울진봉평리신라비(蔚珍鳳坪里新羅碑)에 무게 중심이 쏠려있다. 문헌자료가 영성한 상황에서 금석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국도가 확장되거나 원자력 발전소 건립이 계획되면서 울진지역은 고고학 조사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국도건설에 앞서 진행된 조사는 울진 덕신

1) 『三國史記』卷一,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春二月 北溟人耕田 得濊王印獻之.

리 고분군이며, 단위규모로서는 최초의 전면발굴에 해당된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계획에 앞서 진행된 조사는 울진 덕천리 고분군인데, 조사 전 이미 봉분의 존재가 확인이 되었고 봉평리신라비와도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었다. 명성에 걸맞게 발굴 결과 역시 울진지역에서는 부장품의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고분군을 압도하였다. 다만 울진지역에서는 읍남리 고분군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발굴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덕천리 고분군의 위상이 가장 높다. 자료가 부족한 고대사 연구영역에 고고학 자료의 축적은 가문의 단비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으며, 지역사 연구에 크게 뒷받침되는 자료가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성과를 유념하면서 울진 덕천리 고분군을 통해 신라시대 울진지역의 정치체의 향방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울진 지역의 다른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덕천리 고분군 역시 도굴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그럼에도 수많은 토기 자료와 금동관, 대금구, 모자곡옥 등은 고대 울진지역의 정치체를 이해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동안 울진 지역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가 울진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분석도 그 선상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울진이 가지는 지정학적 위치, 다시 말해 해로(海路)상 거점과 군사적 거점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 보았다.

1. 연구의 목적

지역사 연구는 한 국가의 공간적 범위를 이해하고, 지방지배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엮어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시대의 상한을 삼국으로 고정하여 울진지방의 고분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고분에 대한 연구는 그 한계선이 포항 이남에 국한되어 있다. 예컨대 동해안 지역에서 신라 토기가 출토된 고분군은 대략 30여 곳에 달하지만 대다수가 포항과 울산에 집중된 경향이 강하다. 특히 울진은 신라 중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대부분은 당시의 중심지역인 경주를 기준으로 건천(경주)-경산-대구권, 남쪽으로는 모화(경주)-중산-하대로 이어지는 물

질자료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실제 조사 성과도 미미하였다. 이로 인해 포항을 기준으로 그 이북지역의 신라 토기문화는 베일에 가려진 면이 적지 않다.

최근 동해안지역에 조영된 신라고분들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면서 관심은 그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목적과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신라 고분의 조영연대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분의 초축 연대를 가늠하여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지역집단의 향방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한 관심이다. 그 가운데 토기나 장신구류와 같은 위세품을 바탕으로 신라의 중앙이 지방을 어떻게 제어해 나가려 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고분의 초축 연대나 출토유물을 바탕으로 당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하나의 고분군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초축에서부터 쇠퇴에 이르는 이른바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고분군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고총은 한 두기만 조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 공간 내에 누대(累代)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장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지역, 특정 공간에 조영되는 각 고분군들은 혈연적이건, 지연적이건 간에 모종의 연결고리로 서로 엮여 있을 공산이 크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 지위에 기반을 두어서 차등 있는 분묘를 만드는데, 매장행위와 사회적인 개인의 역할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다룰 울진지역에서는 하나의 단위 공간에 완전한 규모로 발굴된 고분군은 덕신리²⁾와 덕천리 고분군³⁾이다. 그리고 최근 울진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다고 짐작되는 읍남리⁴⁾ 고분도 일부지만 조사가 되었다. 공통적으로 신라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된다. 사실 신라 토기의 부장양이 우세한 고분군은 인근의 영덕 괴시리 16호분과 덕신리, 덕천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포항 옥성리 고분군처럼 원삼국을 대표하는 묘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삼국시대

2)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4, 『울진 덕신리유적』.

3) 성림문화재연구원, 2014,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4) 영남문화재연구원, 2018, 『蔚珍 邑南理 古墳群』.

에 이르면 고분군의 조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울진은 나곡과 삼척의 궁촌 사이의 험준한 산악지형이 자연경계면을 이루고 있다. 이는 울진 북쪽의 영동지방과는 또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진흥왕은 마운령, 황초령까지 순수를 하였으므로 울진을 넘어 북상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 성류굴에서 명문이 발견되었다.⁵⁾ 여기에는 560년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적기해 놓았다. 순수비 이전에 울진을 다녀갔다는 점에서 사적의의는 지대하다. 문헌기록을 존중한다면 울진은 신라가 삼척-강릉-원산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울진은 신라의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

울진은 이른 시기부터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 문헌상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의 진변한조(辰弁韓條)에 우중국(優中國)으로 나오고, 한원(『翰苑』) 번이부(蕃夷部) 신라조(新羅條)에 우유국(優由國)으로 등장한다. 우중국과 우유국이 음상사(音相似)라는 점에서 두 나라는 하나를 가리키는 듯하나, 발음상 유사성에서 유추해낸 것일 뿐 뚜렷한 자료에 근거한 확정된 결론은 아니라는 견해⁶⁾도 있다. 『三國史記』 잡지(雜誌) 지리지(地理志)에 울진군은 본래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이라 하며, 영현(領縣)인 해곡현(海曲縣)도 본래 고구려의 파단현(波旦縣)이라 한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동서(同書) 잡지 지리지 고구려 하슬라주(何瑟羅州)에 우진야군(于珍也郡) 파차현(波且縣)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해보아 이 지역은 고구려에 예속되었다가 신라에 편입된 일종의 양국 간 변경지대라는 특성을 읽을 수 있다. 동서(同書) 제사지(祭祀志) 소사(小祀)의 제장 가운데 하나인 악발(岳髮(一云 髮岳))이 우진야군에 있었다고 하며, 석우로(昔于老) 열전의 배경이 다른 아닌 우유촌(于柚村)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탑상(塔像) 오대산오만진신(五臺山五萬眞身)에는 울진국이 보이고, 동서(同書) 탑상(塔像) 오대산보길도태자전기(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에는 울진대국의 장천굴(掌天窟)이란 표현이 확인된다. 장천굴은 성류굴의 이명(異名)인데, 최근 이 굴의 입구에서 신라시대 명문이 확인되어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⁷⁾ 이 밖

5) 울진 정책기획관 홍보팀, 2019, 5, 23. 울진군 보도자료.

6) 후보돈 외, 2011,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신라의 동해안 경영」.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한국 금석문』, 울진봉평신라비 전시관 개관기념 학술대회 논총. 서울: 울진군·한국고대사학회.

7) 이영호, 2012, 「蔚珍 聖窟窟 巖刻 銘文의 검토」. 『木簡과 文字』 16:241 - 246.

에 『고려사 지리지』(『高麗史 地理志』),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원도 울진현 조의 큰 맥락은 『三國史記』의 그것과 동일하다. 금석문으로는 울진봉평 신라비가 현저하며, 내용상 거벌모라(居伐牟羅) 남미지(男彌只)가 이 지역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창녕 진흥왕 척경비(拓境碑)에 우유(于抽)가 바로 울진에 비정된다.

문헌에 기록된 울진은 울진국 혹은 울진대국이라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독자적인 정치체가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 지역의 정치체의 성격에 관해서는 여전히 예(濊)인가 진한(辰韓)인가를 두고 논의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예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지역은 강릉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과 그 주변에서는 중도유형(中島類型) 혹은 중도문화(中島文化)라 부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취락들이 다수 조사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한(漢)나라의 기술 수용과 교역의 적극적이었던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유이민들⁸⁾ 또는 낙랑국⁹⁾ 설치를 통하여 서북한지역에 전파 토기(土器), 철기(鐵器), 오수전(五銖錢) 등의 유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濊)와 관련된 물질문화이다. 따라서 강릉은 예(濊)와 관련된 지역이 분명하다. 이에 반해 울진지역은 삼한의 정치체와 관련시킬 수 있는 원삼국시대의 분묘는 전무하며, 원삼국에서 삼국으로 전환기의 양상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울진 죽변리(竹邊里) 패총 정도가 원삼국시대 유구로 추정되는데, 그마저도 밭 전체에 패각이 흩어져 있고, 적색연질토기편(赤色軟質土器片)도 산재되어 있을 뿐이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정 이상의 해석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울진이 문헌상 부각되는 시기는 삼국시대이며, 정치체의 성격이 선명해진다는 점에서 고분군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특히 고분의 부장유물 대부분이 신라 토기라는 점에서 신라 중앙정부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거점으로 울진이나 삼척이 거론된다. 그렇다면 울진의 지형적 특성은 해로와 육로가 동시에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사료가 형성한 상태에서 울진에 대한 이해는 고고학 자료의 분석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문헌만으로는 신라의 동

8) 리순진, 1983,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나무곽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8:99 - 158.

9) 尹龍九, 1990,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歷史學報』 126:9.

해안 경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파악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해보았다. II장에서는 울진지역과 관련된 연구성과를 정리해보았다. 연구사 정리를 통해 해당연구의 수준과 정도를 가늠해 보고 연구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였다. III장에서는 덕천리 고분군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울진지역에 소재한 다른 고분군들의 현상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덕천리 고분군의 피장자의 위상이 어느 정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덕천리 고분군을 이루고 있는 각 묘제의 특징과 부장품의 분석을 통해 당시 매장상 특성과 정치세력의 동향을 파악해 보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시된 유물은 3점의 금동관, 대금구, 외래계 토기, 모자곡옥 등이다. IV장에서는 신라가 남부지방과 서남지방을 경영하고 바라보는 것과 달리 신라가 북부 동해안 지방을 바라보는 인식과 경영을 울진지역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신라가 해로에 중점을 두고 울진지역을 바라본 것이며, 고구려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울진지역의 군사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그간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관련해서는 문헌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다.¹⁰⁾ 이는 고고학 조사의 저조에 기인한다. 최근 고고학 자료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지역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영동지방은 꽤 많은 신라고분이 산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공백지대였다. 전면 조사된 고분군이 드물었고, 그마저도 신라의 중심부와 이격된 공간이다 보니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로 인해 각 고분군의 정확한 분포범위나 성격에 대해서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저도 도굴의 피해로 인해 연구 자료는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 자료가 산일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영동지방의 고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명주 하시동 고분군, 영율리 고분군, 강릉 초당동 고분군, 삼척 갈야산 고분군 등이 간략하게나마 학계에 보고되었다.

이상수¹¹⁾는 영동지방, 그 가운데 동해의 북평지방의 고분군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평지역의 고분군은 추암동 고분과 구호동 고분으로 구분된다. 묘제와 유물의 시기적 차이를 4시기로 구분하였고, 주로 수혈식 석곽묘, 횡구식 석실묘, 횡혈식 석실묘가 중심을 이룬다고 한다. 그가 설정한 1기는 5세기말부터 6세기 초엽에 해당하며, 2기는 6세기 초엽에서 6세기 중엽, 3기는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엽, 마지막 4기는 7세기 초엽에서 7세기 중엽으로 설정하였다. 이 고분군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시신의 처리를 무관직장(無棺直葬)한 것이다. 사실 시신의 처리를 관을 사용하지 않고 시신을 그대로 안치하는 장법은 삼국말에 등장하여 통일기에 유행¹²⁾한 하나의 풍습으로 추정된다. 유물의 질적 저하를 중앙에서 이격된 지방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동해 추암동 가-21호분에서 출토된 동관은 경주계의 퇴화양식인데, 이와 유사한 것이 안동 지동 2호분 출토 금동관, 단양 하리 출토 동관 등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되는 것들이어서 계통성이나 피장자의 성격을 상호 가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

10) 이도학, 1987, 「신라의 북진경략에 관한 신고찰」. 『경주사학』 6:23 - 41; 이형우, 1993, 「사로국의 동해안 진출」. 『건대사학』 8:25 - 46.

11) 李相洙, 1993, 「嶺東地方의 新羅古墳研究」. 關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2)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2, 『梁山 下北亭遺蹟』.

공한다.

이한상¹³⁾은 동해안 지역 고분 출토 신라 토기를 정리하였다. 그는 동해안의 정의를 울진을 북계로 부산을 남계로 정의하였다. 강릉을 배제한 이유는 중도식 토기와 신라 토기의 전환기적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움에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울산과 포항권역에서는 5세기 전후에 신라 토기가 등장하고, 영덕과 울진권역에서는 5세기 중엽이후에 신라 토기가 각각 등장하고 있다. 특히 5세기 이후부터는 고분군의 조영이 증가하는게 눈에 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신라 왕경의 방비를 강화하고 왕경 인접 지역에 대한 지배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과 지배의 결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강릉지역을 별도로 다루면서 이 지역이 고구려와의 접경 지역이므로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한다. 그 선상에서 초당동 집단을 중심집단으로 보고 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병산동 집단이나 영진리 집단에도 위세품¹⁴⁾을 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보식¹⁵⁾은 신라고분의 전개양상을 설명하면서 강릉의 고분문화가 처음 개시한 것을 황남대총 남분 단계인 5세기3/4분기로 보았다. 다만 유물의 부장양상에서 강릉 초당동 집단이 우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세품의 집중화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지역의 수장층보다 권위가 약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손정미¹⁶⁾는 묘제의 공간적 확산을 통해 신라의 동해안 진출을 다룬 것이 특징이다. 그는 크게 3단계에 걸쳐 신라의 동해안 진출을 거론하고 있는데, 1단계인 5세기 무렵에는 대형 목곽묘를 축조한 포항지역, 2단계는 적석목곽묘가 보이는 영덕, 강릉지역, 3단계는 신라후기양식 토기가 보이는 울릉도, 통천지역까지 신라가 영역화를 이룬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견해는 신라의 동해안 진출에 시기별로 단계를 설정하였으므로 도식적으로 영역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시기적 흐름을 통해 영역화가 이루어졌겠지만 울진지역에서도 5세기 이전으로 편년되는 토기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울진만이 아니라 강

13) 이한상 외, 2009, 「영남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pp. 68 - 70.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4) 이한상, 2003, 「동해안 지역의 5~6세기 신라분묘 확산양상」. 『영남고고학』 32:35-39.

15) 홍보식, 2000, 『6~7세기대 신라고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6) 손정미, 2006, 「동해안지역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릉, 삼척 등지에서도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최종래¹⁷⁾는 강릉지역의 초당동 고분의 개시시기를 5세기 1/4분기로 보고, 구체적인 축조세력을 울산지역의 석곽묘 조영집단이 직접적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았다. 이 세력들은 재지세력과 융화를 통해 고분을 조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민(徙民)의 배경을 고구려와의 교역루트 확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논단하였다.

서성훈¹⁸⁾은 울진 덕신리 고분군을 통해 중고기 울진지역의 향방을 가늠해 보았다. 울진 지역 고분에 관련된 최초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16호에서 출토된 철제소환두대도(鐵製素環頭大刀)와 48호에서 출토된 대도(大刀)의 피장자를 구체적으로 비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세기 중엽 무렵 신라의 군관조직에서는 소감에 해당하는 자가 이러한 칼을 패용했을 것이고, 대도 역시 화척(火尺)에 상응하는 인물이 패용했을 것이라는 구자봉의 견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외위로 치환하면 11등급 중 6등급인 상간(上干)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6호와 48호묘의 주인공이 울진 지방의 상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 고분군을 울진지역의 중심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¹⁹⁾

지금까지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관련된 성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고고학 자료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신라의 지역지배를 고찰하고 있는 공통성이 확인된다. 다만 너무 의욕적으로 고고자료를 해석한 나머지 도식적인 결론을 도출한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 공간도 대부분 강릉이 집중되어 있다. 물론 그간 조사된 고분 자료의 축적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그나마 본고의 대상지역인 울진지방의 고분 자료가 왕성한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간헐적으로 울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중 서성훈의 경우 덕신리 고분군만을 다룬 연구여서 울진지역의 고분군에 대한 논고로서 유일하지만 그의 견해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예컨대 당시 칼의 패용을 들어 울진지역의 상간(上干)이 묻혔고, 울진지역의 중심세력이었을 것으로 본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상간은 외위(外位)에서도 중간급에 해당한다. 비록 그것이 상간의 무

17) 최종래, 2007,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과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5세기 분묘자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8) 구자봉, 1998, 「신라의 환두대도」. 『신라문화』 15:22-28

19) 서성훈, 2004, 「울진 덕신리 고분군의 역사적 성격」. 안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덤일 지라도 울진지역의 중심세력은 될 수 없다. 울진의 위상과는 전혀 배치되기 때문이다. 사실 칼에 대한 규정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뿐 더러 이 역시 고분에서 출토되는 칼들의 제작방식을 서열화하여 대입한 결과에 기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 후대인들의 관념일 뿐 고대로 소급할 수 없다. 덕신리 고분군은 덕천리 고분군에 비해 묘역이 열세이다. 덕천리 고분군은 극심한 도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부장품의 위세가 상당하다. 더구나 2점에 달하는 금동관과 1점의 동관이 출토되었다. 울진지역에서 덕천리 고분군의 위상을 반영한다. 덧붙여 2016년부터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부분 발굴 조사한 읍내리 고분군 역시 그 위세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울진지역의 고고학 자료는 정치한 분석과 적극적인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본고가 울진 지역의 고분군에 관심을 둔 이유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덕천리 고분군을 대상으로 당시 사회상을 조망해 보려 한다. 특히 고분군이 조영되던 당시에 동반하여 축조된 금석문이 바로 울진 봉평리 신라비이다. 비의 성격이 울령비라는 점에서 신라 중앙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의 지대함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은 후대인 진흥왕대 마운령, 황초령 순수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울진이 가진 위상은 결코 낮지 않다.

II. 덕천리 고분군의 위상

동해안 지역의 고고 자료는 대부분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다. 시기적으로는 5-6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신라 토기의 분포상으로 볼 때 강원도 강릉 4세기 4/4분기, 경북 영덕, 울진, 강원도 양양의 5세기 3/4분기, 삼척 5세기 2/4분기, 동해 5세기 4/4분기를 시점으로 잡을 수 있다.

최근 삼척-강릉-양양으로 이어지는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와 위세품(威勢品)을 검토한 한 연구에 의하면 신라가 이 지역으로 까지 북상한 흔적은 황남동 110호분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고 한다. 연구자마다 편차는 보이고 있지만 황남동 110호분의 경우 대개 5세기 전반으로 비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신라 토기가 이 지역으로 공급된 정황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울진의 경우 울진 봉평리 고분에서는 4세기 초반~후반단계에 이르는 신라 토기가 확인되고 있어 훨씬 이른 단계에 이미 신라의 영향권아래에 포섭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울진지역 고분군의 현황을 살펴보자.

1. 울진 지역의 고분군

울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군은 행정구역상 울진의 북단에서 남단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대략 12개소 정도 확인되었다. 고분군은 입지의 위치나 지형에 따라 해안과 내륙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덕신리 고분군과 덕천리 고분군이며, 부분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읍남리 고분군이 유일하다. 향후 고분조사의 진전으로 인해 자료의 집적됨에 따라 수정은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울진 지역의 고분군의 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1) 덕천리(德川里) 고분군(울진군 북면 덕천리 149)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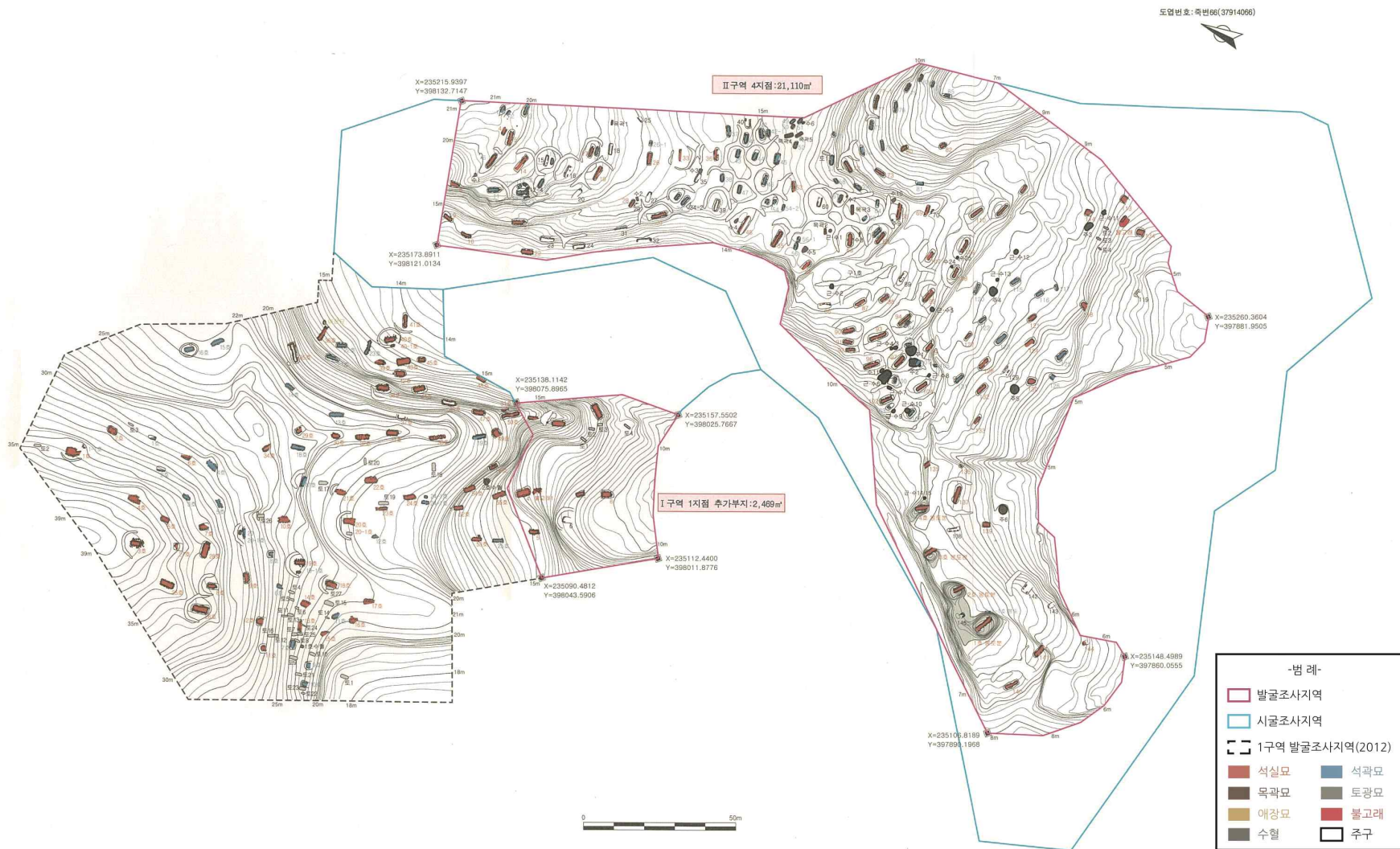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대에 조영된 고분군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신울진원전건설 예정부지이다. 울진원자력 발

20) 성림문화재연구원, 2014,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전소가 들어선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분군이 있었다고 전해진다.²¹⁾ 성림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06년 울진군 북면 덕천리 350-1, 191-2번지 일대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지역내 8개 지점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고분군 2개소(지표조사 1·4지점)와 유물산포지 5개소(지표조사 2·3·5·7·8지점), 해안사구 1개소(지표조사 6지점)가 확인되었다. 선행 발굴조사 된 1지점을 울진 덕천리 고분군 1이라고 하고, 후차적으로 발굴조사 된 지역에 군집한 고분을 울진 덕천리 고분군 2이다. 발굴 조사시 웃마을은 고분군 1-1지점, 아랫마을은 고분군 2-4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고분군 2-4지점 발굴 조사 시 고분군 1-1지점의 추가지점을 포함하여 함께 발굴 조사를 시행하였다. 2지점과 3지점, 5지점, 6지점, 7지점, 8지점에서는 수혈과 주혈, 담장지, 집석유구, 소성유구, 수형주거지 등이 발굴되었으며, 6지점에서는 유적이 없음으로 확인되었다. 토기류와 토도류, 금속류의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이해를 돕고자 <도면 1>은 덕천리 신라묘군의 유구배치도를 정리해보았으며, <도면 2>는 울진 덕천리를 항공사진에 표시해 보았다.

21)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 울진군』.



〈도면 1〉 울진 덕천리 고분군 유구배치도

출처: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도면 2〉 울진 덕천리 고분군의 입지 (출처: <https://map.kakao.com/>)

덕천리 고분군 1-1지점에서는 석곽묘 31기, 석실묘 56기, 토광묘1기, 옹관묘 2기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토기류, 철기류, 옥석류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34호, 43호 석실묘에서는 금동관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눈에 띄는 유물로는 소가야계통의 토기, 모자곡옥, 충주 누암리형 과대(鎊帶) 등이 있다. 축조연대는 6세기 초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비정된다.

덕천리 고분군 2-4지점에서는 목곽묘 5기, 석곽묘 69기, 횡구식 석실묘 72기, 횡혈식 석실묘 5기, 성격불명 26기, 봉토분 5기가 조사되었다. 특히 99호분에서는 삼엽환두대도, 금동관 각각 1점씩이 출토되었고, 1호 봉토분에서는 마구와 행엽이 출토되었다. 축조연대는 5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비정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금동관이 3점이나 출토되었다는 사실이다. 단일고분군내에서 이처럼 많은 금동관이 매장되었다는 점은 덕천리 고분군의 위상을 가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장품은 주로 토기가 많지만 금속유물도 이에 걸맞게 출토되었다. 그 중 눈여겨 볼만 한

유물들로 재갈(齋葛), 등자(鎧子), 행엽(杏葉) 등 마구류이다. 해안에 위치하면서도 어로구가 거의 전무한 사실은 피장자의 생전 위상을 추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가령 울진 덕천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삼엽문환두대도(三葉文環頭大刀)는 경산 임당에서 출토된 환두대도(環頭大刀)와 거의 흡사하다. 대도의 부장양상을 통한 계층성을 파악해 보면 ‘미매납(未埋納)→ 소환두대도(素環頭大刀)→ 삼엽환두대도(三葉環頭大刀)→ 삼환두대도(三環頭大刀)→ 용봉환두대도(龍鳳環頭大刀)’순으로 서열이 인정된다.²²⁾ 〈도면 3〉은 신라의 장식대도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도면으로 나타내 보았다.



장식대도 시기별 변화양상

〈도면 3〉 장식대도의 시기별 변화 양상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2001, 『新羅黃金』.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시기적으로는 5세기 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덕천리고분군 내에서의 위상은 상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덕신리 16호분에서 출토된 철제소환두대도(鐵製素環頭大刀)를 부장한 피장자와는 분명 차별

22) 穴澤和光・馬目順一, 1987, 「古新羅墳丘墓出土の環頭大刀」. 『朝鮮學報』 122:168 - 202.

된다. 16호분이 덕신리고분 내에서는 상위계급에 해당되는바 덕천리 99호분의 피장자가 이 보다는 상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덕신리 보다는 상위의 무덤 군이라 규정할 수 있다.

2) 봉평리(鳳坪里) 고분군(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16)²³⁾

울진군 봉평리 옹지마을 일대에 조성된 고분군이다. 현재 고분군의 주변에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이 건립되어 있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봉분의 흔적은 찾지 못하였지만 1980년대에 금동환(金銅環), 두귀항아리·짧은목항아리·굽다리목긴항아리·굽다리접시·짧은 굽 달린 접시·굽다리접시 뚜껑 등의 신라 토기가 신고되었다. 다양한 기종의 토기편을 수습함에 따라 고분군이 형성되었던 것은 분명하며, 6세기 무렵 수혈식 석곽묘나 횡구식 석곽묘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읍남리(邑南里) 고분군(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하토일마을)²⁴⁾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하토일(下吐一) 마을 뒷산에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다. 봉토분은 하토일 마을 뒷산 주능선을 따라 30여기에 달하는 고분이 확인된다. 2007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읍남리 산54-1번지 일대가 시굴조사된 바 있다. 결과 수혈식 석곽 12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2016년 영남문화재연구원²⁵⁾에서 읍남리 고분군의 일부 지역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발굴이 되었다. 일부 지역이지만 삼국시대 고분인 석곽과 석실묘를 포함하여 총 5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하였고, 평면은 장방형을 띠고 있었다. 주구를 가진 고분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석곽은 활석, 내부는 넷돌을 이용하여 시상을 축조하였다. 봉토분의 경우 뚜껑돌을 축조한 후 봉분을 조성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고배와 장경호의 토기류와 이식과 장식도의 환두분인 금속류가 유물 863점이 출토되었다.

읍남리 고분군은 봉분의 규모와 봉토분의 수로 보았을 때 울진지역의 가장 중심세력의 묘역으로 여겨진다. 출토유물을 미루어보면 5세기후반

23)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의 책.

24)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의 책.

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울진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25) 영남문화재연구원, 2018, 『蔚珍 邑南理 古墳群』.

이후 7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세력은 울진만과 정명천을 통제하면서 울진지역의 대표세력으로 성장한 것으로 짐작된다.

4) 노음리 고분군(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178-1)²⁶⁾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老音里) 매림동에 조영된 고분군이다. 왕피천의 남안에 형성된 들판의 남쪽에 위치한 매림동과 북편의 개늪들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현재 가옥이 들어서면서 고분군의 자세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산일되어 있고, 일부 파괴된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된다.

5) 매화리(梅花里) 고분군(울진군 매화면 매화1리 산60-6)²⁷⁾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죽포동에 조영된 고분군이다. 매화면의 소재지인 매화리의 동편 강당골을 둘러싼 해발 50m내외의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에는 새로 건설된 국도 7호선의 매화교차로가 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부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2기의 봉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도 7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1기는 완전 파괴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 주묘제는 수혈식 석곽묘이다. 조사된 구덩식 돌덧널무덤은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었지만, 묘광의 크기는 길이 510cm이다. 돌덧널은 장방형으로 장축이 북동-남서 방향이며, 현존 크기는 길이 450cm, 너비 80cm, 깊이 30cm 정도이다. 돌덧널은 부정형의 산돌을 이용하였고, 내부에는 강돌로 시상을 마련하였다. 주변에는 부장곽으로 보이는 유물 부장갱이 있다. 수습된 토기 가운데 고배는 6세기 중엽에서 6세기 말로 볼 수 있어 고분의 축조연대 역시 그 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덕신리 고분군과 함께 울진 남부지역에 세력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오산리(烏山里) 고분군(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산198)²⁸⁾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무릉동과 초산동에 걸쳐 조영된 고분군이다. 무

26)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의 책.

27)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의 책.

안동대학교박물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3, 『울진 매화리 고분 발굴조사보고서(울진 덕신리 유적 시굴조사)』.

28)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의 책.

릉동 서편에 범들이라 불리는 다소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이들의 남서편과 남동쪽에 해안쪽으로 뻗은 구릉에 고분군이 조영되어 있다. 남서편에 조영된 것을 오산리 고분군 1, 남동쪽에 조영된 것을 오산리 고분군 2이라고 한다. 오산리 고분군 1은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잔존 양상을 미루어 보면, 할석과 천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길이는 1.8m 정도이다. 대략 10여 기의 파괴된 석곽묘가 남아 있다. 오산리 고분군2에서는 고분의 흔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고분군에 연접해 있는 동해수산연구소를 건축할 당시 다수의 돌덧널무덤이 확인되었고, 이곳에서 삼국시대 유물 다수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고분군 주변에는 많은 신라 토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오산리 고분군의 주 묘제는 수혈식 석곽묘이다. 덕신리 고분군, 매화리 고분군과 함께 울진 남부지역에 세력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덕신리(德新里) 고분군(울진군 매화면 덕신리 475-4)²⁹⁾

울진군 매화면 덕신리 고분군은 국도 7호선과 920번 지방도가 만나는 삼거리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작은 계곡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약 83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는데 호석과 봉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봉분은 확인되지 않았고, 유구의 대부분은 지표 20~30cm 아래에서 존재하였다. 묘제는 수혈식 석곽이며, 평면형태에 따라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나뉜다. 장방형 가운데 일부는 횡구식 석곽도 있으며, 세장방형은 한쪽 단벽이 둥근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많다. 중심 묘제는 수혈식 석곽묘가 75기에 달하고, 여기에 소형 석곽 11기, 옹관묘 1기가 포함된다.

매장주체부는 마사토층을 굴광한 후 석곽의 길이 60cm, 너비 30cm, 두께 30cm 정도의 판석을 세워 조영하였다. 규모는 대략 길이 250cm, 너비 70cm, 높이 60cm이나, 큰 것은 길이 365cm에 달하하지만 작은 것은 길이 138cm 정도이다. 석곽 위에 뚜껑돌을 덮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목개로 마감한 것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뚜껑돌을 사용하지 않아 목개가 위주였던 것 같다.

29)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의 책.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4, 『울진 덕신리유적』.

서성훈, 2004, 「울진 덕신리 고분군의 역사적 성격」. 안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유물 가운데 일부는 황남대총 남분단계까지 소급되는 자료도 확인된다. 즉 제74호묘에서 출토된 고배는 황남대총 남분단계의 토기를 모방하려 한 흔적이 확인된다. 경주토기의 큰 양식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확인된다. 또한 16호분의 철제소환두대도(鐵製素環頭大刀), 48호의 환두 없는 대도는 이 고분군의 피장자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중심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있다.

묘역의 형성은 덕천리와는 다르게 바다를 등진 산의 뒤편에 중점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매화리 고분군과 함께 울진 남부지역에 세력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삼산리(三山里) 고분군(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산1-1)³⁰⁾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아니골과 버기미골에 걸쳐 조영된 고분군이다. 기성면 소재지에서 7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사동리가 있다. 사동리에서 새 도로를 따라 한국재를 넘어 나오는 도로 오른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일명 마산동 고분으로 불린다.

도로의 절개된 부분에서 수혈식 석곽묘의 부재들이 다수 확인된다. 주변에는 5~6세기의 토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능선의 상부에서도 봉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소형의 수혈식 석곽묘가 밀집하는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울진 기성일대에 자리한 세력의 고분으로 추정된다.

9) 황보리(黃堡里) 고분군(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산172-1)³¹⁾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일대에 조영된 고분군이다. 평해읍 월송리에서 황보천을 따라 난 길을 서북쪽에 황보들이 있다. 이들의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개천 왼쪽에 고분군이 위치한다. 고분군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제방공사를 시행할 때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절개된 부분에서는 수혈식 석곽묘의 일부가 확인된다고 한다.

울진 남부에서 비교적 내륙 깊이 위치한다. 고분군의 주변에는 황보천에 의해 형성된 넓은 경작지가 있어 고대부터 물적 기반이 풍부한 곳임을 유추할 수 있다.

30)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의 책.

31)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의 책.

10) 거일리(巨逸里) 고분군(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83-4)³²⁾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에 조영된 고분군이다. 거일리의 남쪽에 접해 형성된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로 인해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 봉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묘제를 구성하고 있던 각종 석재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호·굽다리접시·굽다리접시 뚜껑·과수부배 등의 유물이 신고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주 묘제는 수혈식 석곽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분군의 조영연대는 수습된 토기편을 미루어 보면 6~7세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울진지역에서는 최남단에 조영된 고분군이다.

11) 덕산리(德山里) 고분군(울진군 온정면 덕산리 산129 원덕산마을)³³⁾

울진군 온정읍 덕산리 원덕산마을에 조영된 고분군이다. 원덕산마을의 앞산이 경작으로 인해 절개되었는데, 이때 천석과 할석을 이용한 수혈식 석곽묘가 드러나게 되었다. 유물은 대부완편·고배편·장경호편 등의 신라 토기편들이 산재해 있었다.

울진 지역의 고분군들이 대부분 해안 혹은 해안과 가까운 구릉에 조영된 것과는 달리 덕산리 고분군은 유일하게 내륙으로 깊숙한 산간에 조영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금음리(金音里) 고분군(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싯밭밀마을)³⁴⁾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싯밭밀 마을에 조영된 고분군이다. 마을 북쪽에 있는 서북에서 동남으로 바다를 향해 뻗은 구릉의 상부와 사면에 위치한다. 봉분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토기편이 산재하며 이를 미루어 보면 수혈식 석곽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진 지역의 고분군은 12개소에 달한다. 고분군의 특징은 대부분 해안선 혹은 해안선을 따라 뻗은 구릉상에 고분군이 조영되었다는 점이다. 울진지역에 위치한 고분군들을 단순히 봉분의 크기, 묘제의 지속성 등을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위상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32)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의 책.

33)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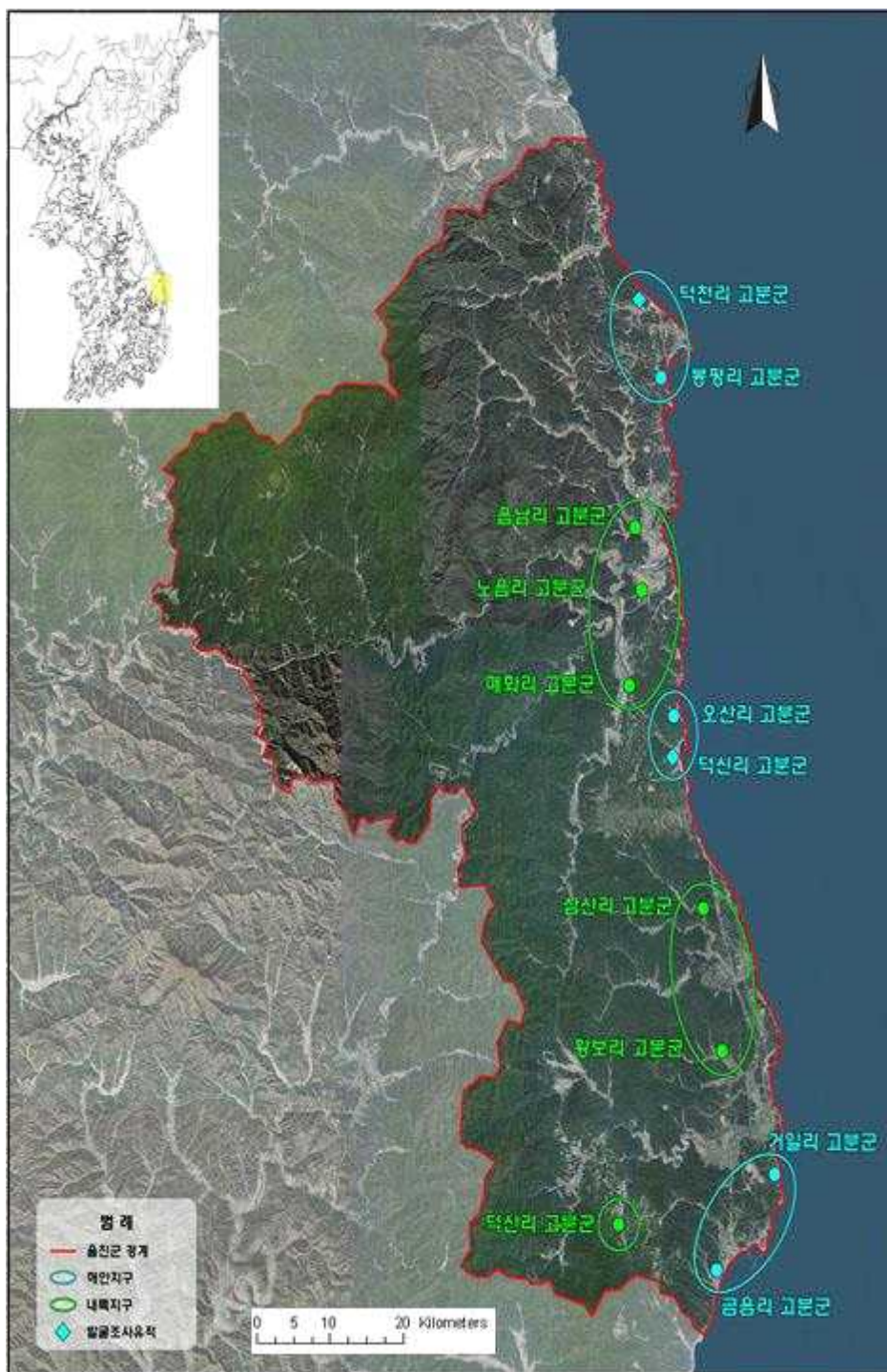
34)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의 책.

해안지역과 내륙(구릉)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고분군을 구분해보았다.

지구	유적명		묘제					계
			목곽묘	수혈식 석곽묘	횡구식 석실묘	횡혈식 석실묘	기타	
해안 지구	덕천리	I -1 지점	·	31	54	2	옹관(2) 토광(1)	90
		I -1 추가	·	·	7	·	불명(1)	8
		II -4 지점	5	69	72	5	불명(26)	173
	봉평리		·	1(수습)	·	·	·	1
	오산리		·	·	·	·	·	·
	덕신리		·	83	·	·	·	83
	거일리		·	·	·	·	·	·
	금음리		·	·	·	·	·	·
내륙 지구	읍남리		·	26	14	·	옹관(1) 기타(15)	56
	노음리		·	·	·	·	·	·
	매화리		·	1	·	·	·	1
	삼산리		·	·	·	·	·	·
	황보리		·	·	·	·	·	·
	덕산리		·	·	·	·	·	·
계			5	211	147	7	46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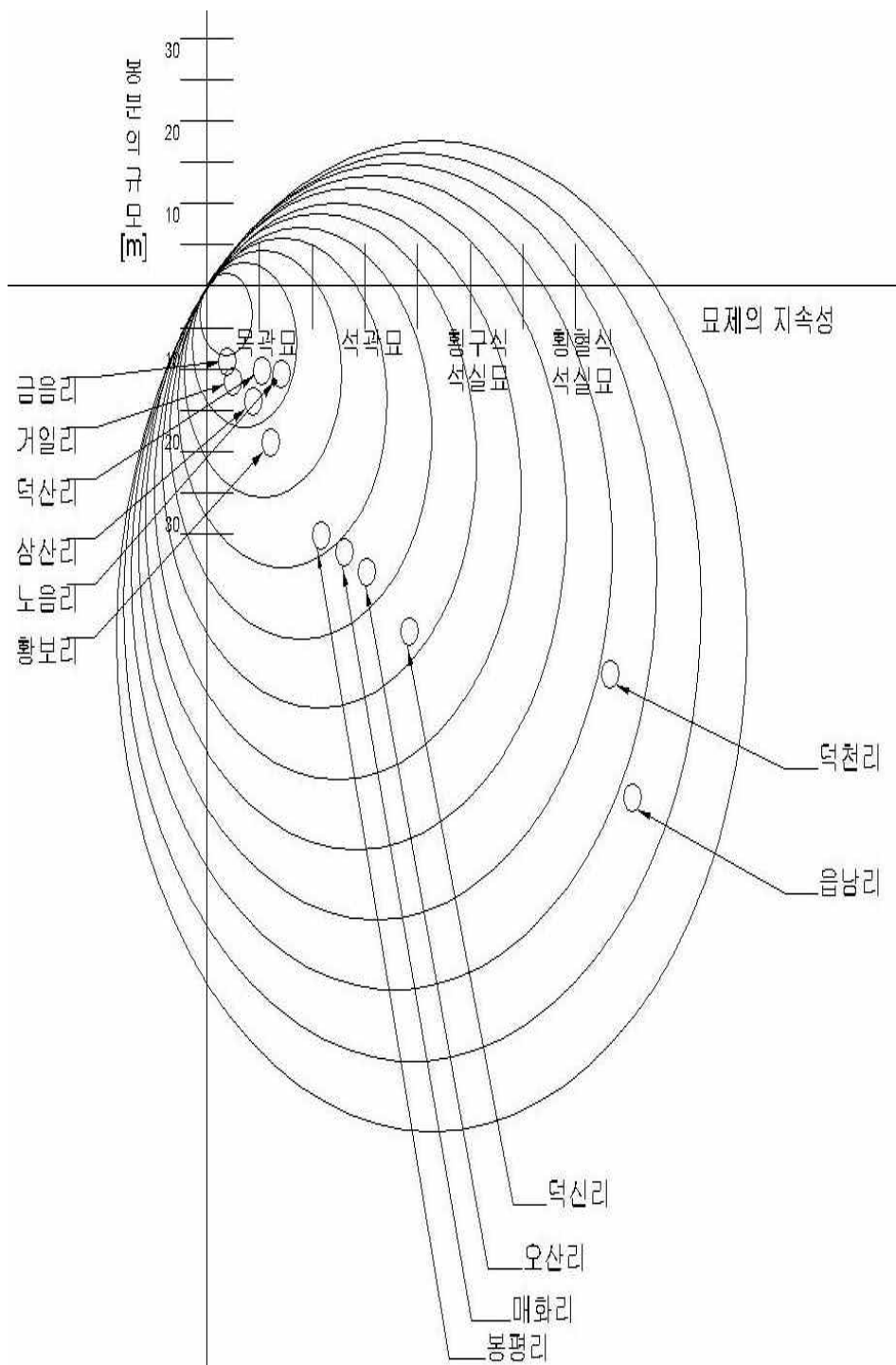
〈표 1〉 울진지역 지구별 신라고분 분포현황

현재까지 울진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분묘는 412기에 달하며 그중 덕천리 고분군이 271기이다. 조사된 수량으로만 보면 단연 덕천리 고분군이 으뜸이다. 나머지 고분군의 경우 지표조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자세한 양상은 알기 어렵다. 울진 지역의 고분군은 대부분 해안을 끼고 조성된 측면이 강하다. 참고로 〈도면 4〉는 울진지역 고분군 위치를 도면으로 정리한 것이다.



〈도면 4〉 울진지역의 신라 고분군

(출처: <https://map.kakao.com/>)



〈도면 5〉 울진지역 고분군의 위상 도식화

봉분의 규모로 보면 울진 지역에서 가장 상위의 세력은 읍남리 고분군이다. 2016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일부 삭평되고 교란되었지만, 하단시설과 내부 출토유물이 양호하게 남은 삼국시대의 석실·석곽묘가 발굴되었다. 유물의 구성은 토기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무기류, 장신구류, 농구류와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동일집단이 일정기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분군의 조영 시기는 5세기 중후엽에서 7세기 전엽을 중심으로 이룬다.³⁵⁾ 일부 구역의 발굴조사를 제외하더라도 읍남리에는 현전하는 봉분의 크기가 30m에 달하는 점, 능선을 따라 지속적으로 조영된 점을 감안하면 누대(累代)에 걸쳐 권력을 장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세력 단위는 덕천리 고분군이다. 고분군의 크기는 읍남리에 비해 작지만 역시 누대에 걸쳐 묘역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유구간 중복이 거의 없이 단위 묘역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세력이 일정 묘역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웅변한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무기류, 농공구류, 마구류 등이 있다. 토기류에서는 고배와 개의 빈도수가 높았으며, 무기류에서는 철촉의 비중이 높았다. 기타 금속류에는 금구와 교구등이 있으며, 대도와 함께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이는 당시 덕천리를 울진지역에서의 위상을 엿보게 해준다고 하겠다. 특히 목곽-석곽-석실로 이어지는 묘제의 지속성은 울진지역에서 보기 드문 양상이다. 따라서 덕천리 고분군 세력을 울진군 북면 지역의 유력한 정치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그룹이 오산리 고분군과 덕신리 고분군 집단이다. 이 집단의 묘제는 수혈식 석곽이 주를 이루고 그것도 집단군을 구성하고 있다. 대형 봉토분은 보이지 않지만 울진지역에서 수혈식 석곽묘가 보급된 단계에 급속하게 신흥세력으로 급부상했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덕신리 고분군의 경우 하나의 단위면적에 밀집도 높은 석곽묘의 분포는 덕천리 고분군보다는 낮지만 울진 지역에서의 위상은 결코 낮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하위 집단은 봉평리, 노음리, 매화리, 삼산리, 황보리, 거일리, 덕산리, 금음리 고분군 등이다. 이 고분군의 특징은 대형의 봉분을 가진 고분이 없다. 수혈식 석곽묘가 중심이 되더라도 그 수가 다른 고분군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묘역의 지속적인 사용기간도 짧았고, 정치

35) 영남문화재연구원, 2018, 『蔚珍 邑南理 古墳群』.

세력의 위상 역시 높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도면 5〉는 언급한 울진지역 신라고분군 집단의 봉토분과 묘제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위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현재까지 울진지역에서 발굴된 단위면적으로는 가장 큰 유적은 덕천리 고분군이다. 여기서는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등 시기를 달리하는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고분군은 동해와 인접한 해발 42m 정도의 완만한 구릉에 조성되었는데,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교란 및 유실이 심한 상태였다 다만 축조방식이나 유물의 조합 등은 대체로 파악하기가 양호한 상태였다. 석곽묘와 석실묘가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당시 정치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적의 축조연대는 석곽을 미루어보면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있고 중심연대는 6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다. 신라 토기는 시공적으로 5세기 이후 북으로는 양양, 강릉, 남으로는 부산에 이르는 지역의 고분에서 부장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울진지역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신라 토기가 전래되었고, 그 계기가 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절에서는 덕천리 고분군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묘제의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자.

2. 덕천리 고분의 단계설정

덕천리 고분군은 동해 앞바다가 조망되는 중앙부의 완만한 능선사면에 목곽묘가 처음 축조되었다. 분묘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다가 직교하는 쪽으로 변화된다. 묘광의 방향에 따라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묘광이 직교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그룹은 4기, 평행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3기로 구분할 수 있다.³⁶⁾

1단계는 목곽묘가 조영되는 단계이며, 현재까지 울진지역에서 확인된 목곽묘는 총 5기로 모두 덕천리 고분군에서 확인되었다. 구릉사면과 해안사구 지대에 입지하고 있으며, 1호는 횡구식 석실묘가 축조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2~5호는 서로 인접한 형태로 다수의 수혈식 석곽묘가 축조된 지점에서 확인된다. 황남대총 남분 보다 이른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확인되는데 4·5호의 경우 모서리가 말각으로 처리되었다. 묘형은 모두 별도의 부곽이 마련되지 않은 단곽식이다. 바닥상면으로는 별다른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4·5호에서는 목곽부식흔이 간헐적으로 확인된다. 유물부장은 3·4호의 경우 양단으로, 5호는 단부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 위주로 부장되었다.

2단계는 주구가 중복되고 공유되는 고분군 1-1지점의 8호·17호·26호, 고분군 2-4지점의 41호·42호·42-1호·43호·45호·46호·47호 등 석곽묘가 조영되는 시기이다. 덕천리 고분군 1-1지점에서는 31기와 2-4지점에서는 69기, 총 100기가 확인 되었다. 본고에서는 유구 및 유물의 잔존 상태를 감안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석곽의 바닥을 무시상으로 고운모래로만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유물의 부장은 한쪽 단벽 또는 양단벽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4m 미만의 소형 석곽이며, 대개 너비는 1m 미만으로 축조 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신라의 중심지인 경주와 그 인근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로 신라의 변방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또한 울진 덕천리 고분군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목곽에서 석곽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아직까지는 석실이 등장하지 않은 때이다. 5세기 중후반으로 볼 수 있다.

36) 성림문화재연구원, 2014,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참조.

3단계는 석실묘가 등장하는 단계로서 고분군 1-1지점의 3호·6호·7호·29호·1호·34호·53호, 1-1추가지점의 3호, 2-4지점 9호·14호·38호·59호·61호·67호 석곽묘와 68호·73호·78호·93호·99호 석실묘가 해당된다. 덕천리 고분군 133기의 석실묘가 확인되었으며, 고분군 1에서는 56기, 고분군 2에서는 77기의 석실묘가 확인되었다. 횡구식 석실은 5세기 후반에 해당되며, 선축된 유구의 단벽이나 횡구부를 허물고 양장벽에 벽석을 잇대어 매장주체부를 연장시키는 증축식 석실묘에서도 확인된다. 횡혈식 석실은 1-1추가지점 1호·9호 석실이 해당되며, 1-1추가지점에서 2기, 2-4지점에서 5기, 총 7기의 횡혈식 석실이 확인되었다. 고분군 1-1추가부지의 2기를 제외한 4지점의 5기는 훼손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1추가지점의 1호는 시상과 관대의 시설 양상으로 보아 4~5회 정도의 매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9호는 무시상에 유물의 양상도 명확하지 않아 추가장의 양상은 다소 파악이 힘들다. 횡혈식 석실의 시기는 6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4단계는 고분군 1-1지점 8호와 2-4지점의 90호·96호·102호·112호·124호를 제외하고는 연접주구가 더 이상 축조되지 않은 시기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덕천리 고분군에서 석곽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석실묘의 축조가 보편화 된다. 6세기 전반보다 늦은 단계이며, 울진봉평리신라비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 덕천리 고분군의 조영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시기이다.

5단계는 거의 분묘가 축조되지 않은 단계이다. 1-1추가지점의 3호 석실묘가 해당된다. 6세기 중반으로 편년된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신라의 지방 경영과 관련하여 울진 봉평리 신라비(524)가 발견되었다. 울진 지역에서는 6세기 2/4분기에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고분의 축조가 감소한다. 예컨대 덕신리 고분군 역시 6세기 2/4분기 이후로 고분 축조가 중단된다. 이와 궤를 함께하며 덕천리 고분군도 6세기 중엽 단계에서 분묘가 거의 축조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봉평리비의 내용처럼 사태 진압 후 관련 집단에게 내려진 처벌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6단계는 고분군 1-1추가지점 4호·5호·6호·30호, 고분군 1-1추가지점의 4호·5호·6호·8호등이 해당하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변화한다. 유물의 박장화가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고배류가 줄어들고 옹과 호류가 증가한다. 시기는 6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마지막 7단계에 이르면 덕천리 고분군 2-4지점의 85호·119호·134호 등

횡혈식 석실묘가 축조되며, 마제종장연속문이 시문된 토기가 확인된다. 시기는 7세기 중반~후반으로 편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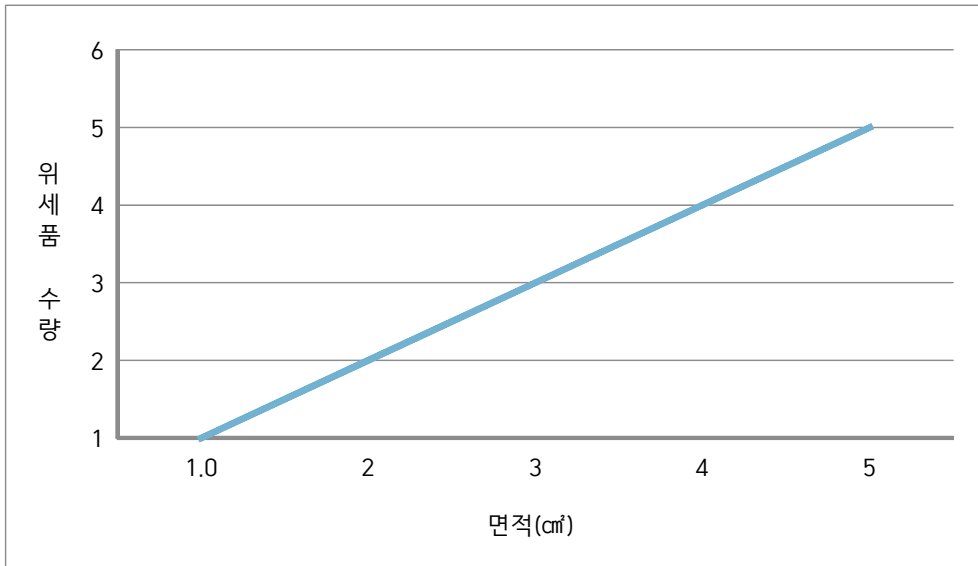
〈표 2〉는 덕천리 고분군의 단계별 특징이 잘 남아있는 분묘의 속성표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5세기~7세기 중엽 고분이 축조되면서 묘제는 목곽묘에서 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로 묘제가 변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단계인 목곽이 조영되는 시점에서는 위세품이 부장되는 경우가 없다.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초로 들어서면서 고분이 급증한다. 2단계인 석곽묘가 조영되는 시점에서부터 금동제세환이식, 철도 등이 함께 부장된다. 3단계에서는 목곽묘가 더 이상 축조되지 않고 석곽묘가 주요묘제로서 축조가 되며, 일부 석실묘도 함께 부장된다. 이시기에도 금동제세환이식, 철도, 유리제경식이 꾸준히 함께 부장된다. 4단계~6단계까지는 이전의 주요묘제로 축조되었던 석곽묘의 조영이 점차 줄어들면서 사라지게 되고 석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점점 대형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부장품으로는 금동제 세환이식, 유리제 경식, 대도에서 금제 태환이식, 환두대도, 금동관, 삼엽문환두대도, 마구 세트 등이 출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6세기 이후 석곽묘의 축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Y자형 입식이 달린 금동관이 출토되며, 6세기 말 횡구식석실과 함께 횡혈식석실이 축조되며, 대금구와 활석제 모자곡옥, 마노제 구슬이 출토됨을 알 수 있다. 덕천리는 고분이 축조되는 5세기부터 고분이 더 이상 축조 되지 않는 7세기 후엽까지 꾸준히 위세품이 부장된다. 특히 3차례에 걸친 금동관의 부장 사례는 신라 중앙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에서는 중형의 목곽묘가 축조되다가 세장방형의 중형급 석실이 축조되었다. 이후 위세품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6세기 이후에는 중형의 무덤에서 15미터급의 봉토가 형성된 대형분으로 점차 무덤의 규모가 커져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후반에는 5세기에 비해 관심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³⁷⁾ 〈도면 6〉은 조사된 유구 중 각 시기가 지남에 따라 주로 해안지대나 계곡부에 축조되던 것이 구릉지대로 이동하여 축조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표 4〉은 각 시기별 분묘에서 출토된 고배를 중심으로 올린 덕천리 고분군의 축조 시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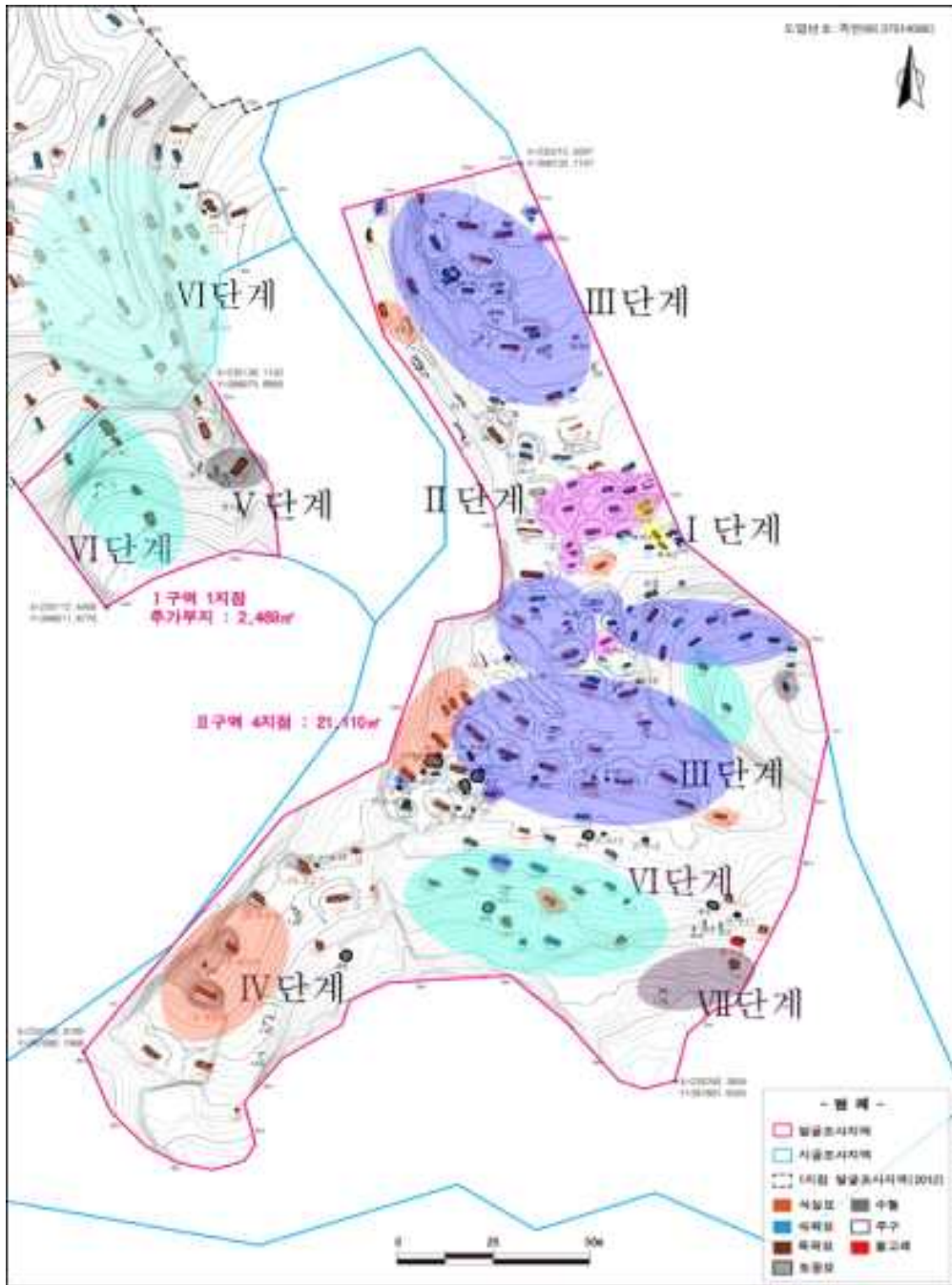
37) 이인숙, 2018, 「4~6세기 포항·울진 지역의 고분 문화」, 『한국고대사연구』 93:29-59.

속성			묘제 양식	제원			등 고 관 계	규 모	주요(위세품) 유물
단 계	구 역	호 수		(길이x너비x 깊이)m	장폭	면적 (㎡)			
I	2-4	4	목곽	2.8×0.5×·	2.2:1	1.3㎡	평	중	·
		5	목곽	2.1×0.6×0.3	2.6:1	1.2㎡	평	중	·
II	1-1	26	석곽	4.1×0.7×0.9	5.64:1	2.9㎡	평	중	·
	2-4	41	석곽	2.3×0.6×0.6	4.05:1	1.2㎡	평	중	금동세환이식(1), 철도(1)
		42	석곽	2.5×0.6×0.1	4.15:1	1.5㎡	평	중	교구(1)
		42-1	석곽	1.6×0.6×0.5	3.4:1	0.8㎡	평	중	
		43	석곽	2.1×0.6×0.3	4.2:1	1.2㎡	평	중	
		45	석곽	2.8×0.8×0.3	3.4:1	2.3㎡	평	중	
		46	석곽	3.1×0.6×0.3	5.56:1	1.7㎡	평	중	금동세환이식(1쌍), 유리경식(17)
		47	석곽	2.1×0.6×0.3	3.63:1	1.3㎡	평	중	
III	2-4	9	석곽	3×0.7×0.3	4.29:1	2.1㎡	평	중	
		38	석곽	1.9×0.6×0.3	3.0:1	1.1㎡	평	중	
		59	석곽	2.4×0.6×0.6	3.92:1	1.4㎡	평	중	
		61	석곽	2.3×0.6×0.6	4.09:1	1.3㎡	사	중	
		67	석곽	2.5×0.7×0.5	3.38:1	1.8㎡	평	중	유리경식(5)
		14	석실	(5)×0.7×0.4	·	(3.4)㎡	평	대	
		68	석실	3.7×1.2×0.6	3.01:1	4.5㎡	평	대	
		73	석실	3.6×0.7×0.5	3.9:1	2.4㎡	평	대	
		93	석실	6×0.9×0.6	6.61:1	5.4㎡	평	대	금동세환이식(1), 철도(1), 유리제경식(2)
		99	석실	(41)×1×0.5	4.3:1	(3.9)㎡	평	대	
IV	1-1	8	석실	2.3×0.8×0.9	2.9:1	1.8㎡	평	중	
	2-4	90	석실	3.8×0.9×0.6	4.47:1	3.2㎡	평	대	
		96	석실	5.3×1×0.6	6.61:1	5.4㎡	평	대	금동세환이식(1), 철도(1), 유리제경식(2)
		102	석실	4×0.9×0.5	4.2:1	3.7㎡	평	대	
		112	석실	3.3×0.9×0.1	3.8:1	2.8㎡	평	대	
		봉토 1	석실	5.4×1.2×1.4	4.49:1	6.6㎡	직	대	금동세환이식(1), 금동제장신 구(1), 마구류, 행엽3, 운주1, 교구4, 철도(1)
V		·	·	·	·	·	·	·	·
VI	1-1	6	석실	4.1×1.4×0.6	3.00:1	5.6㎡	직	대	금동세환이식(2쌍)
		34	석실	3×0.9×0.4	3.38:1	2.7㎡	사	중	금동관(1)
	1-1 추가	4	석실	3.3×1.3×0.2	2.6:1	4.2㎡	직	중	
		5	석실	2.6×0.8×0.3	3.2:1	2.0㎡	직	중	
	2-4	80	석실	2.2×0.8×0.7	2.8:1	1.6㎡	직	중	
		82	석실	1.9×0.9×0.7	2.1:1	1.7㎡	직	중	
VII	2-4	85	석실	·	·	·	·	·	
		119	석실	·	·	·	·	·	
		134	석실	2.1×1.4×0.4	1.6:1	2.9㎡	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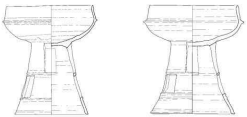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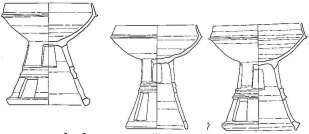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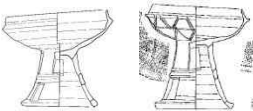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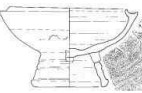
〈표 2〉 울진 덕천리 고분군의 유구 속성표

〈표 3〉은 〈표 2〉울진 덕천리의 유규속성표를 보고 고분의 면적에 따른 위세품의 증가치를 표로 나타내 보았다. 면적의 규모면에서 중형에서 대형으로 축조됨에 따라 고분에 부장되는 위세품의 수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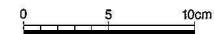


〈도면 6〉 울진 덕천리 고분군 삼국~통일신라시대 단계
(출처: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2-4, 4호 2-4, 5호  2-4, 41호 42-1호 47호  2-4, 석실 14호 석곽 38호 61호	 석실 53호  석곽 90호 석곽 90호  석실 96호 2-4, 봉토 1호  석실 4호 2-4, 102호 124호	매 장 감 소	 1-1, 석실 6호  1-1, 석실 30호 1-1추가 4호 1-1추가, 6호	 석실 119호
5세기	6세기	6세기 중반	6세기 후반	7세기

〈표 4〉 울진 덕천리 고분 출토 고배 편년

(출처: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3. 부장품의 위계

덕천리 고분군의 출토품 가운데 금동관은 피장자의 위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신라는 시기적으로 5~6세기, 다양한 재질로 만든 관들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관은 당시 신분을 표징해주는 대표적인 위세품이다. 현재까지 신라의 관은 대략 80점 정도가 확인되는데,³⁸⁾ 6세기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부터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관이 출토되고 있다. 출토빈도에서 영남지역이 우세를 점하지만 충북 단양 하리, 경기도 포천, 강원도 동해 추암동, 강릉 초당동, 경북 울릉도 현포리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출토 된다. 이러한 출토정황은 중앙과 지방사이의 정치체간 호혜관계를 파악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5세기 후반대에 대구, 양산, 창녕, 성주지역은 장신구, 무기, 토기 등 신라의 영향이 강하다. 묘제에도 적석목곽분의 영향을 받아 낙동강 동안지역에 공통되는 묘제는 수혈계 횡구식 석실이다. 이 지방의 고층에서 출토된 착장형의 위세품류는 대부분 신라의 중앙으로부터 각 지역으로 하사된 물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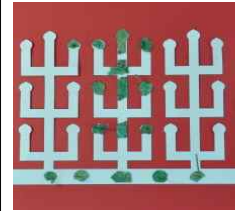
낙동강의 동안에 위치한 이 지역들은 신라와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합천은 다라국으로서 6세기 2/4분기 무렵에 이르게 되면 합천 옥전 6호분에서는 산자형 금동관이 출토된다. 이러한 산자형(山字形) 금동관이 신라의 관식문화와 관련 있다는 일반론이 틀리지 않았다면 다라국의 멸망시 신라와의 정치적 관계가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관식이 다수 출토되었다. 관은 그 자체 신분을 표지하는 위세품이어서 공적인 쓰개로 정의할 수 있다. 관은 특정한 공간에 위계화된 인간을 표상하는 하나의 사회적 징표이다. 따라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계선(界線)이 있었다. 다만 관을 단순히 의례용에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장품으로 제한시키더라도 피장자의 위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관이 문헌 무덤보다 문히지 않는 무덤이 더 많기 때문에 피장자의 사회적 위상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출자형 혹은 수지형 관은 신라관의 대명사이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원도 강릉 초당동, 삼척, 경북 울진에서 수지형대

38) 구문경, 2009, 「영동지역의 신라관과 관식」, 『신라문화연구』 2:181 - 183.

관이 출토되었고, 울진 인근 내륙에서는 충북 단양 하리, 경북 안동 지동에서도 출토사례가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 강릉 초당동 B-16호분에서는 금동관이, 동해 추암동 B지구 가 21호분에서는 동관이 출토되었다. 관테는 3개의 세움장식을 붙였고, 세움장식은 매우 단조롭게 그저 동관의 내부를 끝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네모 구멍을 뚫어 출(出)자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충북 단양 하리에서 출토된 동관과 같은 양상을 하고 있다. 강원도 동해 추암동 동관의 내부에서는 두개골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므로 매장 당시 관을 머리에 씌운 채 묻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삼척 공단에서 금동관이 출토되었고, 아울러 내륙에서는 단양 하리, 안동 지동, 울릉도 현포리 고분군에서도 관식이 출토되어 당시 신라의 지역지배 양상을 가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표 5>는 경북 및 동해안 일대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정리한 것이다.

			
동래 복천동 금동관	경산 임당 금동관	성주 가암동 금동관	영주 태장리 금동관
			
양산 금조총 금동관	대구 비산동 금동관	울릉도 현포리 금동관	강릉 초당동 금동관
			
동해 추암동 동관	안동 지동 금동관	합천 옥전 M6호	단양 하리 동관

〈표 5〉 경북 및 동해안 일대 출토 신라식 관식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2001, 『新羅黃金』.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울진 덕천리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지그재그의 점열문이 시문이 되어 있고, 결속방식은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철심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매듭방식은 단양 하리의 금동관과 유사하다

덕천리 고분의 금동관이 제작된 시기의 관식의 특징은 소위 퇴화형 관식으로 출자형이 도드라지게 표현되지 않았다. 대륜의 외연문양이 타출점열문과 압날원문을 조합한 모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퇴화단계는 중고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신라의 활발한 정복활동과 지방지배가 실

현되던 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퇴화단계의 관이 분포하는 지역은 신라에 새로이 복속된 한강유역과 동해안 일대이다. 이는 복속된 지역의 사람들을 신라식 종교제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방의 비신라계인을 신라인화 하려는 하나의 양상으로 주목해 볼 수 있다.³⁹⁾ 아래 <표 6>은 덕천리 고분군 출토의 신라 금동관 · 동관이다.



<표 6> 울진 덕천리 고분군 출토 신라식 관식

출처: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복속된 지역의 인민들을 신라의 방식대로 규합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제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봉평리 신라비의 내용은 신라 중앙 정부에 대한 모종의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 처리과정을 율령에 의거하여 조치한 것이다.⁴⁰⁾ 그 가운데 사건의 중심 공간으로 노인촌이 등장한다. 사실 봉평리 신라비의 모두(冒頭)에는 신라 육부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신라 육부’란 왕경을 의미한다. 그런데 육부만 말해도 될 것을 신라라는 용어를 붙였던 이유는 비문의 독자가 비신라계였음을 방증한다. 비문에 보이는 노인촌을 비신라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인이란 비신라계로서 신라의 점령으로 신라인화 되었다가 집권력이 느슨해 진 틈을 타 언제든 신라를 배반할 수 있는 자들인 셈이다. 이들은 집단적 예측민인 신분을 유지하다가 중앙과 먼 지리적 격절성(隔絶性)을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무력으로 진압된 양상을 비문은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울진이라는 공간은 신라와 고구려가 충돌하는 교집합 부분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

39) 함순섭, 2012, 「신라 수지형대관의 전개과정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40) 주보돈, 2002, 『금석문과 신라사』. pp. 91 - 114. 서울: 지식산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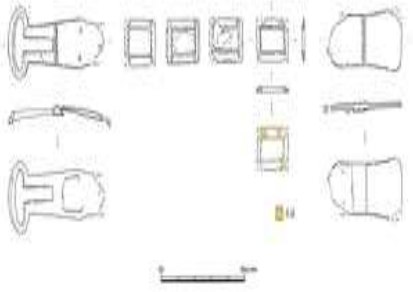
또한 울진 덕천리 고분군에서 유의할 점은 신라 왕경내에 매장된 장법과 유사한 현상이 관찰된다. 경주 황남대총의 남분과 황오동 100번지 14호 분에서는 피장자의 두부에서 운모가 출토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분묘에서 출토된 운모는 도교와 관련된 의례적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⁴¹⁾ 다만 당시의 장법에서 도교적인 사유를 추출하기는 어렵지만 왕경의 매장의례와의 유사성은 인정된다. 왕경에서 출토되는 운모는 단일한 형태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같은 형태의 운모판을 연결하기 위한 소공이 확인된다. 이는 여러 운모판을 연결하기 위한 결속용 구멍이며, 발치에서 출토된 양상을 미루어 볼 때 신발을 장식한 것일 수 있다. 어쨌든 운모를 매장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시기는 중국의 한대인데, 이러한 옥장(玉葬)의 전통이 한반도에 유입되어 목관묘, 석곽묘, 적석목곽묘로 이르는 오랜 계승 형태로 이해된다.⁴²⁾

그리고 1지점 제29-1호분에서는 충주 누암리식 과대와 모자곡옥이 출토되었다. <표 7>의 과대는 그 당시 피장자의 생전 신분을 표지해주는 유물로써 의미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모자곡옥을 현지생산으로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모자곡옥이 납석제인데, 고분군이 위치한 그 주변에 납석이 생산되므로 현지에서 제작되었다는 논리이다.⁴³⁾ 설명의 편의를 위해 <표 7>은 1지점 제29-1호에서 출토된 과대와 모자곡옥의 모습이다.

41) 金恩鏡, 2010, 「新羅古墳 出土 雲母의 性格」. 『한국고고학보』 77:65 - 71.

42) 오광섭 외, 2015,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복안(覆顔)과 청동제유물의 재검토」. 『야외고고학』 22:5 - 21.

43)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1지점 29-1호 출토 과대	1지점 29-1호 출토 모자곡옥

<표 7> 울진 덕천리 고분 29-1호분 출토 과대와 모자곡옥

출처: (성립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2012년 울진 덕천리 고분군 발굴 당시 고분내에서 모자곡옥이 출토된 사례가 유일한 사례였다. 최근 2018년 한반도문화재연구원⁴⁴⁾에서 발굴한 양산-명동 내 유적, 제32호 석곽묘 내에서 출토되었다. 이로써 고분내에서 모자곡옥이 출토된 사례는 울진 덕천리 고분군과 양산-명동 유적의 두 유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자곡옥은 왜계유물로 분류된다. 한국에서 모자곡옥이 출토한 예는 전남 광양 용강리 4호 수혈주거지,⁴⁵⁾ 고흥 방사리 제39-4호 주거지,⁴⁶⁾ 보성 백학제 1호 수혈⁴⁷⁾ 등에서 사례보고가 있다. 다음은 국내에서 출토된 모자곡옥을 <표 8>로 정리한 것이다.

				
광양 용강리 4호 수혈주거지	고흥 방사리 39-4호 주거지	보성 백학제 1호 수혈	순천 월산리 출토	양산-명동 32호 석곽묘

<표 8> 국내 출토 모자곡옥

우선 전남 광양 용강리 4호 수혈주거지에서 출토된 모자곡옥에 대해서

44)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8, 『양산 명동 근린공원우회도로 개설부지내 유적 약보고서』.

45) 순천대 박물관, 2002, 『光陽龍江里遺蹟 I -龍江里宅地開發地區-』.

46) 湖南文化財研究院, 2006, 『高興訪土遺蹟』.

47) 全南文化財研究院, 2015, 『寶城白鶴堤遺蹟』.

는 보고자는 토기를 근거로 5세기이후의 연대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흥 방사리 제39-4호 주거지는 공반토기 가운데 창녕양식의 토기가 보이고, 이러한 유형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성 백학제 유적에 대해서는 시기판정은 어렵지만 삼국시대의 것만은 분명하다고 한다. 세 유적의 공통점은 모두 전남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예로부터 일본 구주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곳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출토된 모자곡옥은 이 지역 세력과 구주지역과의 교류의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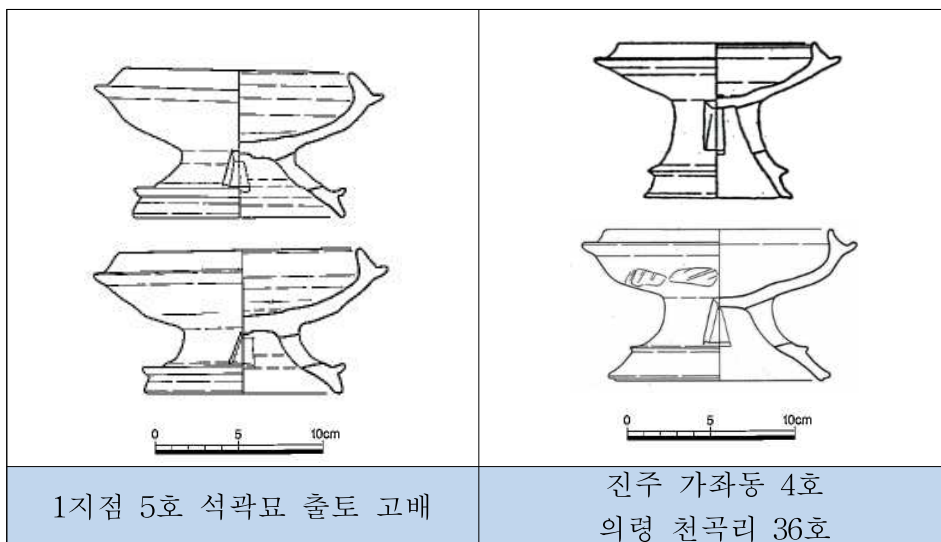
그렇다면 울진 덕천리 고분에서 출토된 모자곡옥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곳으로 전해졌을까. 발굴 조사 보고서에는 고분군이 위치한 현지에서 원석이 생산된 점을 감안하여 현지제작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 견해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제한적이다. 현지에서 제작되었다면 수 백기에 달하는 고분 가운데 단 한 점밖에 출토되지 않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울진 덕천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모자곡옥은 신라가 동해안 해류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교류의 산물일 것이라 여겨진다. 현지 생산으로 분석을 단순화시키면 유물 서술 과정은 수월할지 몰라도 유물에 내재된 역사성은 몰각되어 버린다. 적어도 성분 분석 등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동원된 분석결과가 아닌 이상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울진 덕천리 1지점 5호분에서는 소가야계통의 토기도 출토된 바 있다. 윤정희⁴⁸⁾의 고배 연대관에 따르면 6세기 중엽, 박승규⁴⁹⁾의 연대관에 의하면 6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유물이다.

이러한 기형의 고배는 전남 고성 연당리 18호, 고성 내산리 34호, 고성 옥봉 7호, 경남 진주 가좌동 2호, 4호, 사천 예수리 2호, 5호, 진주 우수리, 진양 중촌리 배만골, 사천 사촌리, 하동 고이리 나-17호, 진주 윤곡리 2호, 진주 수정봉 2호, 의령 서동리, 의령 천곡리 35-2호, 36호 등지에서도 확인되었다. 주로 경남 남해안 일대에 위치하는 고분군들이다. 남해안 지역이 왜와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가야 계통의 토기가 울진 덕천리로 유입될 때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48) 윤정희, 1997, 「소가야토기의 성립과 전개」, 경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49) 박승규, 2010, 「가야토기 양식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표 9> 울진 덕천리 고분 1지점 5호 석곽묘 고배와 소가야계통 토기(고배)
출처: (성립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박승규, 2010, 「가야토기 양식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신라 국가 형성기의 영웅설화인 석우로전설의 무대가 바로 우유촌(于柚村)이다. 우유촌은 곧 울진지방이므로 동해안의 영웅설화가 신라의 경험담으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일부의 시각이지만 울진봉평비에 보이는 파단(波旦)을 외위로 보지 않고 ‘하타’로 보는 견해가 있다.⁵⁰⁾ 사실 이러한 견해의 선구는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으로 그는 『삼국사기』(『三國史記』)지리지 울진군의 영현 해곡(海曲)의 고명(古名)이 파단(波旦)에 주목하여 하타로 읽은 데서 비롯된다.⁵¹⁾ 만일 도래계 씨족 하타씨의 고향이 울진이라면 왜계 유물이 더 출토되어야 하고 공반되는 다른 종류의 유물이 동반되어 출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점을 배제하고 직접적인 전달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양자의 가능성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장신구의 제작지에 관한 논쟁은 경주에서 제작하여 지방으로 내려보냈다는 분여론(分與論)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의 것을 모방하여

50) 연민수, 1999, 「고대 한일관계와 울진지방」. 『한국고대사회와 울진지방』. pp. 113 - 118. 대구: 한국고대사학회

51) 鮎貝房之進, 1972, 『雜攷・新羅王號攷・新羅國名攷』. pp. 346 - 347. 東京: 國書刊行會.

제작하였다는 이른바 지역모방 제작설(地域模倣製作設)이 있다. 전자는 원료산지의 확보, 전문화된 공인의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둔 반면 후자는 중앙과 내륙의 도안의 차이 등을 들어 독자적인 생산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분묘 대비 수량적인 희소성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 보낸 분여론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싶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지역마다 장신구의 소유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신라 중앙정부가 지방을 바라보는 무게중심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경산, 대구, 의성, 창녕, 양산지역에서는 관, 귀걸이, 허리띠, 금동신발, 대도 등 주요 장신구와 장식대도가 세트로 출토되고 있다. 이에 비해 성주, 안동, 강릉, 부산, 순흥, 삼척, 청원 등은 앞의 지역보다 종류도 적으며 양적으로도 열세이다. 이곳 울진 덕천리 고분에서도 금동관과 귀걸이는 동반되는 반면 허리띠와 금동신발은 출토되지 않았다.

II장 울진 덕천리 고분군의 위상에서는 개략적으로 드러난 울진군의 12개소 고분군 중 덕천리 고분군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발굴된 덕천리 고분군의 묘제를 통해서 덕천리 고분군의 단계를 가늠해 보았다. 출토된 부장품 중 피장자의 위계를 가늠할 수 있는 위세품, 즉 금동관, 대금구, 모자곡옥을 통해 덕천리 고분군이 울진 지역에서 가지는 위상을 살펴보았다.

Ⅲ. 신라의 동해안 경영과 울진

1. 해로의 거점으로서의 울진

신라의 동해안 경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거점 공격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 다만 나물왕대에 신라 북변을 침입한 말갈을 실직의 들판에서 막았다는 기록이나 하슬라주의 가뭄과 메뚜기 피해로 인해 조세감면기사가 전부이다. 이 기록은 신라가 일찍부터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영역 확장과정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⁵²⁾ 1기는 동해안 일대로의 진출, 2기는 소백산맥 동남부의 확보, 3기는 한강유역으로의 진출 및 가야제국 병합, 4기는 전 백제 고토(故土)와 일부 고구려 고토의 수복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의하면 신라는 초기 정복 활동을 경주의 동쪽과 동해안 진출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⁵³⁾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에 의하면 파사이사금대에 동해안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확보한 영역은 동해안의 남북 160리로 추정될 정도이다.⁵⁴⁾ 특히 신라는 6세기 이후에는 지배체제가 정비되면서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가운데 3기에 해당되는 한강유역의 확보는 명실 공히 신라가 한반도내 삼국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증왕대에 이르면 주군현제도를 정비하면서 실직주에 이사부를 군주로 임명한 기사가 확인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사부는 군주가 되어 지금의 울릉도에 해당하는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이사부의 실직주 군주 임명은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 선상에서 울진은 일찍부터 신라에 병합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2세기 초에서 5세기 초까지 신라가 먼저 동해안에 진출하여 삼척지방에 이르렀고, 큰 타격을 가하였다.⁵⁵⁾

52) 이기동, 1997, 「신라의 風土와 그 역사적 특성」, 『新羅社會史研究』, 서울: 일조각.

53) 이형우, 1993, 앞의 논문.; 심현용, 2008,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과 루트」,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54)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上) -‘三韓考’ 제3부-」, 『韓國學報』 2:35-39.

55) 『三國史記』卷一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二三年; 秋八月 悉直·押督二國王來降: 『三國

이보다 앞서 동해안 지역에 웅거하던 옥저는 고구려에 어염을 주기적으로 바치던 집단이었다. 고구려는 어염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공감대 속에 장수왕, 문자명왕에 이르게 되면 울진, 영해, 영덕, 청하 지역까지 그 세력권을 넓혔던 것 같다. 그렇다면 동해안 지역은 5세기 초까지 고구려의 영향 아래에 놓여져 있었던 셈이다.

진한의 소국들 간 위상 변화와 관련된 기록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은 실직곡국과 음즙벌국의 영토분쟁 사건이다. 실직곡국을 삼척에, 음즙벌국을 안강에 비정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 간 견해가 합일되고 있다. 양국의 분쟁은 신라의 동해안 경영을 논하는데, 구체적으로 해로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설명의 편의를 위해 관련 사료의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년(102) 가을 8월에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이 강역을 다투다가, 왕을 찾아와 해결해줄기를 청하였다. 왕이 어렵게 여겨 말하기를 “금관국 수로왕은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다”라고, 그를 불러 물었더니 수로가 의논하여 다투던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왕이 6부에 명하여 수로를 위한 연회에 모이게 하였는데 5부는 모두 이찬으로서 접대 주인을 삼았으나 오직 한기부만은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주관하게 하였다. 수로가 노하여 종 탐하리에게 명하여 한기부의 우두머리 보제를 죽이게 하고 돌아갔다. 그 종은 도망하여 음즙벌국의 우두머리 타추간의 집에 의지해 있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종을 찾았으나 타추가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왕이 노하여 군사로 음즙벌국을 치니 그 우두머리가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국과 압독국 두나라의 왕도 와서 항복하였다.⁵⁶⁾ 『삼국사기』, 「신라본기」 파사니사금 이십삼년 추팔월조

史記』卷一 新羅本紀一 婆娑尼師今 二五年; 秋七月, 悉直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鄙: 『三國史記』 卷三 新羅本紀三 奈勿尼師今 四十年; 秋八月, 靺鞨侵北邊, 出師大敗之於悉直之原: 『三國史記』卷四 新羅本紀 四 智證 麻立干 六年;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始於此.

- 56) 『三國史記』新羅本紀一 婆娑尼師今 二十三年 秋八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王難之謂 金官國首露王 年老 多智識 召問之 首露立議 以所爭之地 屬音汁伐國 於是 王命六部 會饗首露王 五部皆以伊瀋爲主 唯漢祇部 以位卑者主之 首露怒 命奴耽下里殺漢祇部主保齊而歸 奴逃依音汁伐主陀鄒干家 王使人索其奴 陀鄒不送 王怒 以兵伐音汁伐國 其主與衆自降.

위 두 소국은 현재의 삼척과 안강이라는 점에서 공간적인 격절성(隔絶性)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삼척과 안강지역의 세력이 충돌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점에 서서 실직을 현재의 경주시 천북면일대로 비정⁵⁷⁾하거나 흥해로 비정하는 견해⁵⁸⁾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견해로는 천북면일대나 흥해를 실직(삼척)과 변진의 중계거점무역지로 보는 견해⁵⁹⁾도 있다. 다만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재내용을 중시한다면 실직을 삼척으로 비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안강이다. 흔히 음즙벌국을 안강으로 비정하는 유력한 이유는 바로 조선시대 간행된 <대동여지도> 때문이다.

현재의 경주 안강평야는 최근까지 범람원이어서 이 공간을 상정하여 진한의 국을 설정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의 포항일대로 여겨지는 『삼국사기』 지리지 의창군의 기사는 음즙벌국의 전신인 음즙화현이 고려시대에 안강현에 합속되었다고 되어 있다.

우선 신라의 국가 성장 과정 속에서 동북방의 진출과 연계하여 실직국과 음즙벌국의 영토분쟁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국의 분쟁은 강역(疆域)을 두고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분쟁의 소재지인 동해안은 좁고 긴 해안로를 따라 현재의 7번 국도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삼척과 울진까지는 해안조차도 산악지형이어서 물자 및 군수물품을 운반하는 측면에서 애로가 상당하다. 그런데 분쟁의 중재자로서 금관국의 수로왕이 개입한 것이 유의된다. 심지어 금관국조차도 신라와는 상당히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단순히 연장자이자 지식이 많아서 분쟁의 중재자로서 나타난 것일까. 사실 금관국은 낙동강에서 남해로 이어지는 해로를 바탕으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철을 낙랑, 대방 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까지 수출하던 해상 교역의 요충지이자 중심지였다. 따라서 금관국은 해로를 이용한 네트워크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다. 수로왕이 수계와 해로상의 지식이 많았다는 점이 중재의 주요 인자로 작용한 것을 미루어 보면 실직국과 음즙벌국의 분쟁이 해로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관국 수로왕의 판결로 분쟁지는 음즙벌국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가 음즙벌국을 공격하여 정복함으로써 분쟁지를 포함 음즙벌국

57) 최병운, 1982, 「서기 2세기경 신라의 영역확대」, 『전북사학』 6:17 -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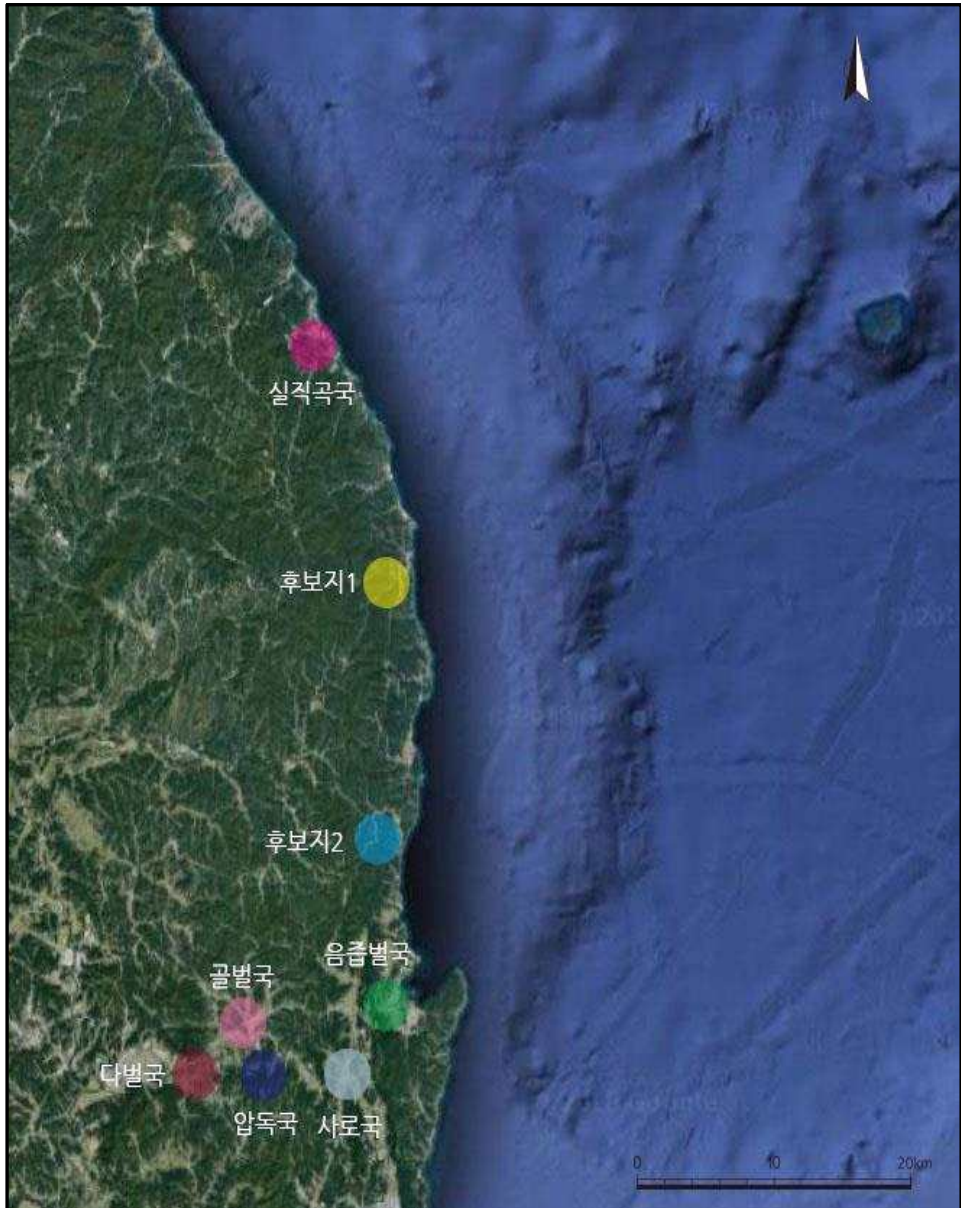
58) 방용안, 1987, 「실직국에 대한 고찰」, 『강원사학』 3:51 - 66.

59) 김창겸, 2018, 「신라의 실직국 복속과 지방통치의 추이」, 『신라와 바다』. 서울: 문헌

의 영토 전부를 신라에 편입하게 된다. 실직국은(삼척)은 해상활동과 동해안 일대의 해로를 활용하고자 신라에 자진항복을 함으로써 신라가 초기 정복에서 동해안 일대의 맹주국으로 실직국에 대한 간접지배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실직국을 복속하면서 동예 및 고구려, 말갈세력과 동해의 해상권은 물론 어염과 해산물 등의 경제력 확보를 두고 대립하였다. 이는 바다를 주요 생활기반으로 하지 않는 신라의 경제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철을 매개로 하는 경제권과 그에 따른 해로의 이용에 관한 분쟁을 당시 해상 네트워크가 부족한 신라가 직접적으로 중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로서는 직접적 철의 생산국이자 해로와 관련된 지식이 풍부하고 나이마저 연로한 수로왕을 초빙하여 분쟁을 불식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음즙벌국을 반드시 안강에 비정할 필요는 없다.⁶⁰⁾ 『삼국사기』 지리지의 의창군 기사를 고려하면 음즙벌국은 현재의 안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동해와 인접한 해안에 위치하였을 공산이 크다. 그 선상에서 아래 〈도면 7〉은 실직국과 음즙벌국의 분쟁상황에서 음즙벌국이 안강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해안 일대 중 강역이 위치한 곳에 후보지1을 영덕으로, 후보지2를 홍해로 설정하여 도식화해 본 것이다.

60) 이희준 외, 2016, 「사로국의 성립과 성장」, 『신라의 건국과 성장』, 영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도면 7〉 동해안지역의 실직곡국과 음즙별국의 후보지

(출처: <https://map.naver.com/>)

한편 홍해 마조리에서는 ‘진솔선예백장(晋率善濊伯長)’명 인장이 출토되었다. 이 인장은 중국과의 활발했던 교류의 산물이다. 즉 중국 군현에서는 귀순 혹은 조공을 바치던 이들에게 관작은 물론이고 그 지위를 표징하는

인장, 관복, 관모, 장신구 등을 내려줌으로써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 이 인장을 통해 당시 정세를 가늠해 본다면 예족(濊族)에 해당되는 족속들이 활동무대를 흥해까지 이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실제 안강과 삼척 사이의 동해안에는 물적 기반이 풍부한 지역이 별로 없다. 때문에 북방의 예족을 매개로 교역을 통해 이익을 구가하던 정황이 읽힌다.

이보다 앞서 남해차차웅 16년에는 북명인(北溟人)이 밭을 갈다가 예왕인(濊王印)을 습득하여 나라에 바쳤다는 일화가 전한다.⁶¹⁾ 물론 남해차차웅 16년 당시에는 이 지역이 낙랑군의 동부도위에 속해 있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일이 신라의 영토편입이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濊)’라는 종족의 공통분모는 확인된다. 따라서 동해안 지역이 예와 관련된 활동공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 선상에서 교역의 기저에 해로를 상정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두 소국의 충돌은 육로라기보다는 해로의 선점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었고, 물길에 다소 경험과 지식이 많았던 금관국의 수로왕이 중재자로 등장하였던 던 것 같다.

당시의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정은 국제정세도 맞물려 있었다고 보인다. 아무리 주체적 역량이 강화된다하더라도 국제정세가 호조를 보이지 않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서 2세기 초에서 5세기 초까지 먼저 신라가 삼척지방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6세기 중엽 당시 삼국의 정황상 열세 속에서도 신라는 삼국 간의 정세를 이용하여 불리한 상황을 조금씩 타개하면서 동해안으로 점진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우선 553년 한강 상류 유역의 확보 후 신라가 하류에 주둔한 백제군을 공격하는 바람에 나제동맹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시켰다. 이로 인해 백제 위덕왕이 왕세자 신분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554년 7월 백제 성왕이 이를 격려차 이동하던 중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군사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 심지어 그 머리를 잘라 신라 도당의 계단에 물어버림으로써 사체에 대한 모욕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나제동맹은 결렬되고 양국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만다. 신라는 한강 상류지역의 진출을 피하면서 550년 무렵 단양에 적성비를 세웠고, 555년 북한산 순수비를 세우고, 556년에는 안변에 비열홀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568년에는 현재의 함경도로 까지 진격하여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를 세웠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61) 『三國史記』卷一 新羅本紀一 南解次次雄 一六年; 春二月, 北溟人耕田, 得濊王印, 獻之.

양국의 영역을 효율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는 신라에 대항할 여력이 없었다. 고구려 안원왕(531-545) 재위 말년에 일어난 대규모의 무력충돌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추군과 세군의 세력다툼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자만 2천이 넘을 정도로 충격이 컸었다. 이 충격의 여파는 거칠부를 만났던 해랑법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짐작이 간다. 그는 거칠부에게 “지금 우리나라(고구려)의 정사가 어지러워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라로 데려가 달라”고 할 정도로 귀족의 세력다툼으로 인한 사후 수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고구려는 북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551년 9월 돌궐의 신성 공격 및 백암성 공격은 고구려 장군 고희에 의해 제압당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예봉이 북방으로 향했던 그 시점에 신라에 의한 고구려 한강 유역의 공격은 삼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제정세에 힘입어 신라가 공백지대에 무혈 입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울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로 석우로를 거론할 수 있다. 그는 첨해이사금 3년 혹은 7년에 쳐들어온 왜인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 과연 그는 왜인에 의해 살해되었을까? 우선 그의 살해배경을 살펴보자. 그의 비참한 최후는 열전(列傳)에 자세히 실려 있다. 왜 사신 갈나고(葛那古)가 신라에 와서 객사에 머물고 있는데 우로가 왜왕을 소금 굽는 노예로 삼고 왕비를 취사부(炊事婦)로 삼겠다는 실언을 했다고 전한다. 이에 왜왕이 출전을 감행하려 하자 첨해왕이 몸소 우유촌(于柚村)에 출진하였다고 한다. 우로가 자신의 실언을 인정하고 왜인의 진영으로 가서 사과를 했지만 결국 쌓아 놓은 장작더미에 얹혀져 불태움을 당했다는 것이다. 우로의 전설이 전해진 우유촌(于柚村)은 울진의 우진야(于珍也)와 통한다. 다만 촌(村)명의 사용은 첨해왕 당시의 일로 보기 어렵다. 촌이란 용어가 고대 한국에 처음 도입된 시점은 대략 4세기 무렵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가장 이른 사례로 414년 건립된 광개토왕릉비에 촌이 보이는데 아마 신라도 고구려를 경유하여 도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⁶²⁾ 이를 감안하면 우로의 전설은 후대에 상당부분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로의 전설을 동해안일대에 전하는 영웅설화가 신라가 영역국가의 발판에 올라서자 그것을 신라의 중앙으로 부회시켰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이 이야기

62) 朱甫墩,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서울:신서원.

는 우유촌에 퍼져있던 민간전승이며, 왜구를 성공적으로 격퇴하다 중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지방의 한 족장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다 이 지역이 사료국에 의해 병합되어 신라왕족의 영웅설화로 확대, 변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⁶³⁾ 동해안의 족장설화가 신라 중앙의 영웅설화로 재탄생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의 해양은 쿠로시오(黑潮)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한국 서안에는 연안을 남하하는 한류가 있는데 한국해협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와 합류하여 대마해류를 형성한다. 대마해류는 대마도를 중심으로 동수도(東水道)와 서수도(西水道)로 나뉜다. 이 양수도(兩水道)를 통과하면서 물살이 세지고 파도가 높아진다. 서수도를 통과한 물은 한반도 남동단과 북동단을 흘러 원산만과 울릉도 부근에 이르러 동쪽 즉 일본쪽으로 전향한다.

이러한 해류의 흐름을 신라가 동해안 진출을 꾀하는 당시 신라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였을 것이다. 최근 울진군에서 성류굴에서는 신라 진흥왕이 ‘경진년명’의 명문이 발견되었다.⁶⁴⁾ 경진년은 560년에 해당한다.

경진년(560, 진흥왕 21년) 6월 ○일, 잔교를 만들고 뱃사공을 배불리 먹였다. 여자 둘이 교대로 보좌하며 펼쳤다. 진흥왕이 다녀가셨다(행차하셨다). 세상에 도움이 된 이(보좌한 이)가 50인이었다.”⁶⁵⁾ (울진군 성류굴 ‘경진년명’ 명문)

판독은 심현용 학예사와 국립경주박물관 이용현 학예사가 공동 판독한 것이다. 여기서 잔교(棧橋)란 부두에서 선박에 닿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을 말한다. 이를 통해 화물을 부리고 선객이 오르내린다. 명문 속에 보이는 잔교와 뱃사공을 유념해 보면 진흥왕이 울진 성류굴 행차시 선박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신라가 동북변의 진출로 육로뿐 아니라 해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활용하였음을 방증해준다. 한편 보좌한 이가 50명이라는 사실도 유의된다. 백제 성왕이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동할 때 동반한 이가 50명이었다. 아울러 고

63) 이기동, 1997, 「于老傳說의 世界」, 『新羅社會史研究』, 서울: 一潮閣.

64) 울진군 정책기획관 홍보팀, 2019, 5, 23, 울진군 보도자료.

65) “庚辰六月日/ 柵作楹父飽/ 女二交右伸/ 眞興/ 王舉/ 世益者五十人”

려 태조 왕건이 왕경으로 경순왕을 배알할 때 동반한 인원 역시 50명이라는 점에서 왕의 호종에 정규인원으로 구성된 수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표 10> 울진 성류굴 ‘경진년’ 명문

출처: (심현용, 2019, 「울진 성류굴 제8광장 신라 각석문 발견보고」, 『목간과 문자』 22)

후대의 일이지만 발해가 일본과의 교역을 하기 위해 동해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은 저명하다. 아울러 안압지에서 출토된 185호 목간은 고성에서 보낸 식혜와 관련된 꼬리표이다. 한반도 지형의 특성상 서해안은 소금이 풍부해 젓갈류의 음식이 발달하였다. 이에 비해 동해안은 소금이 귀하여 곡물을 섞어 발효하는 식혜류가 발달하였다. 지금도 강원도 고성에는 가자미식해가 유명하다. 발효식품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운송을 할 경우 변질 혹은 부패되기 쉽다. 발효식품이라는 특성상 시간이 걸리는 육로보다는 최단시간에 왕경에 도착할 수 있는 바닷길을 이용했을 공산이 크다고 여겨진다.



<표 11> 안압지출토 185호 목간

(출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고대목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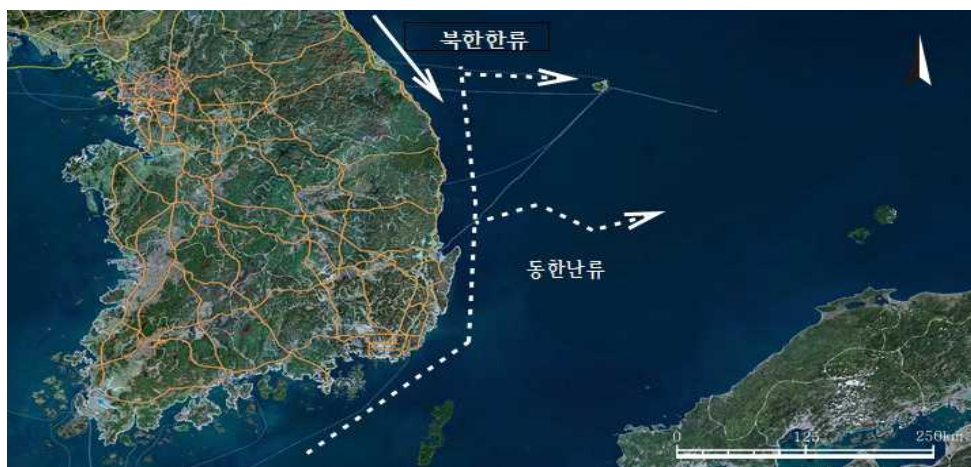
한편 『대동지지』(『大東地志』)권16 강원도 울진조를 보면 산수(山水)를 설명하면서 ‘두암(寶岩(北二十里 或稱門岩 通海路通三陟))’이라 하여 ‘두암은 북이십리에 있으며 혹은 문암이라 하는데 해로를 통하여 삼척과 통한다’고 한다. 사실 울진에서 삼척으로 가기는 굉장히 까다롭다. 갈령제라는 천혜의 고개가 형성되어 있고, 해안선을 따라 절벽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7번 국도가 새롭게 부설되어 갈령터널이 뚫리는 바람에 교통의 편의가 확보되었지만 전통사회에는 울진과 삼척은 자연적인 장애물로 인해 교류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그러한 교통상 애로에 대한 나름의 해결안으로서 해로를 적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울진지방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아울러 울진의 해서(海嶼) 항목에는 울릉도가 설명되어 있다. 즉 울진과 울릉도가 하나의 동일 권역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울릉도에는 「우해왕과 풍미녀의 전설」이 설화로 전해지고 있다.⁶⁶⁾ 여

66) 울릉군지편찬위원회, 2007, 『울릉군지』. 울릉군: 울릉군.

기서 우해왕은 울릉도의 왕이며 풍미녀는 그의 왕비이다. 지면상 전문을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주된 골자는 대마도의 왜인들이 울릉도를 약탈하자, 우해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마도의 수장과 담판을 벌였다고 한다. 그리고 귀환할 때 그의 셋째 딸인 풍미녀를 데려와 왕비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풍미녀의 사치와 탐욕으로 인해 우산국이 어려워졌고, 중국에는 왕이 충신의 말을 듣지 않아 신라에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민간전승 형태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점, 주요 무대로서 대마도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상세력인 대마도와 울릉도 양자 간의 상관성이 없지 않고서는 성립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⁶⁷⁾ 『대동지지』에서 울진이라는 공간 속에 울릉도를 포함시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우며, 해로라는 특성이 그 배경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실제 날씨가 맑은 날이면 죽변항 언덕에서 울릉도의 육안관찰이 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울진의 경우 울릉도로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며, 이런 이유로 이 지역에는 조선시대 울릉도로 항해하기 위한 처소인 대풍헌(待風軒)이 건축되었을 공산이 크다.⁶⁸⁾ 그렇다면 신라 지증왕대 이사부가 울진지역에서 울릉도를 경략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참고로 아래 <도면 8>은 해로의 거점으로 울진의 지정학적 위치를 해류의 흐름과 관련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도면 8> 동해안지역의 해류모식도

(출처: <http://www.NAVER.COM>)

67) 김호동, 2001, 「삼국시대 新羅의 東海岸 制海權 확보의 의미」, 『大丘史學』 65:43 - 81.

68) 강봉원, 2012, 「울릉도 고분에 대한 일 고찰」, 『歷史學研究』 48:1 - 35.

신라가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어염의 확보라는 경제적인 포석도 깔려있었을 것이다. 원래 동해안은 고구려에 어염을 공급하는 주요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신라에 귀속되면서 고구려는 수산물의 정기적인 공급선에 큰 타격을 입었으리라 사료된다. 이중환이 『택리지』에서도 밝히고 있듯 울진이 포함된 9군은 소금을 생산하는 주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2.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울진

동해안에 대한 관심은 삼국 및 통일기가 되어서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울진은 동해안 길을 거쳐 신라왕경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자연장애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우선 그 지세에 관련하여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영(嶺)의 동쪽에는 9군이 있는데 북쪽은 함경도의 안변과 땅을 접하고 있는 섬곡(歙谷), 통천(通川), 고성(高城), 간성(杆城), 양양(襄陽)과 옛날 예국(濊國)의 수도인 강릉, 그리고 삼척(三陟), 울진(蔚珍), 남쪽은 경상도의 영해부와 접경한 평해(平海)의 각 군현이다. 9군은 모두 동해변에 있으며, 그 남북의 거리는 비록 천리에 걸치나 동서는 함경도와 같이 백리 미만이다. 척량산맥으로 이미 서북을 막고, 동남쪽은 멀리 바다와 통하였다. 지세는 비록 웅색하고, 큰 산 아래에 위치하나, 산과 평야가 모두 낮고 평평하고 아름답다.⁶⁹⁾ 『택리지』, 「팔도총론 강원도」 중

그래서인지 삼국과 통일기에 걸친 여러 고승들의 행적이 유난히 동해안 일대에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자장, 의상, 원효 등 고승들의 행적이 이곳 강릉, 양양에 까지 걸쳐 있음은 신라의 동해안 지역의 관심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선상에서 눈여겨 볼 사료는 지증왕 6년 기사이다.

왕이 직접 국내의 주와 군과 현을 정리하였다.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로 임명하였다.⁷⁰⁾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육년조

이는 지역명칭으로 지방행정을 새롭게 재편한 것으로 이해되며, 특히

69) 『擇里志』 「八道總論 江原道」; 嶺之東有九郡曰歙谷北與咸鏡安邊接壤曰通川曰高城曰杆城曰襄陽曰江陵故藏貊所都曰三陟曰蔚珍曰平海南與慶尙寧海府接境. 九郡皆在東海上南北相距雖千里東西如咸鏡未滿百里. 嶺脊既阻西北而東南並海遠通地勢雖局促居泰山之下山野皆低平明秀.

70) 『三國史記』新羅本紀 智證王 六年; 王親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始於此.

국내에 주군현을 정했을 때 가장 먼저 왕경인으로 하여금 지방관으로 파견한 것이다. 이 기사의 핵심은 지방관의 전국적인 파견으로 행정거점의 수가 확대되면서 관할 영역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를 가다듬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여겨진다.⁷¹⁾

그리고 통일기인 신문왕대에 이르면 지방제도로써 9주 5소경제가 정립이 된다. 통일기에 올진은 군(郡)으로 편제되었다. 9주 체제하에서 올진군은 명주에 속하였다. 군의 장관은 태수이며, 올진군에는 산하에 해곡현이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해곡현은 현재 덕신리에 비견되며, 올진군의 중심은 올진읍에 해당된다. 따라서 덕신리에 비해 덕천리 고분군의 위상이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9주 가운데 명주가 삭주와 길게 11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태백산맥이라는 자연적인 장애물이 지방제도의 개편에 반영된 결과이다. 말하자면 양 지역 간에는 문화적 격절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지형적 장애는 『三國志』 위지 동이전에 단단대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지리적 격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자연적 특성은 영동(嶺東)이란 독특한 지형적 표현을 배태시켰다. 한편 격절된 공간은 대피할 때도 유용하다. 문헌에 의하면 246년 위나라와 고구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고구려가 위나라의 서안평을 공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위나라는 유주자사 관구검을 보내 현도에서 나와 1만의 군사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된 것이다. 1차 비류수전투와 2차 양맥(梁貊)전투에서 크게 이긴 동천왕은 기세를 몰아부쳐 관구검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나 관구검의 방형진으로 인해 크게 패하게 되고 왕은 패잔병을 이끌고 압록원(鴨渌原)으로 도망하게 된다. 결국 관구검은 환도성을 함락하게 되고, 왕기를 보내 동천왕을 추격하지만 왕은 남옥저까지 도망하였다. 결국 추격을 포기하게 된 것도 지리적인 격절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격절성은 일종의 국가간 공백지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지역은 신라와 고구려의 세력이 교집합을 이룬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올진은 고구려의 남진루트이자 격전지인데, 동해안 길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진격상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길은 측면의 배후습격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공수에 유리하다. 신라는 강릉 지역을 군사적

71) 朱甫墩,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pp. 75 - 85. 서울: 신서원.

으로 중시했는데, 바로 고구려의 중원 거점에 대한 방비 때문이다. 중원고구려비로 대표되는 고구려의 지역 거점은 군사적 행위를 위한 것이었다. 고구려가 중원을 거점으로 남한강 상류를 이용하여 영월, 정선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타고 측방 공격을 해올 경우 니하를 중심으로 하슬라가 중요한 군사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선상에서 정선 송계리산성은 6세기 전반의 신라산성인데, 산성이 위치한 정선 임계면은 명주의 영현이었다. 이 지역은 동북쪽으로 삼당령을 넘으면 강릉이 나오고, 동쪽으로 갈고개와 백복령을 넘으면 동해시, 서쪽으로는 정선읍을 거쳐 영월, 제천, 단양이 나오며, 남쪽으로는 삼척이 나오는 교통상의 결절점(結節點)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울진-삼척-강릉이 하나의 군관구였다고 한다면, 삼척이나 울진에서도 차단목을 운영한다면 공격군의 힘을 소진시킬 수 있게 된다. 바로 울진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신라는 고구려에 대한 무력 도발도 불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한 정황을 『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34년조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34년 가을 7월 고구려의 변방 장수가 실직 별관에서 사냥하는 것을 하슬라성주가 군사를 보내 습격하여 살해하였다. 고구려왕이 이를 듣고 분노하여 사신을 보내 “내가 대왕과 더불어 우호관계를 맺어 매우 기뻐하였는데, 이제 군사를 보내어 우리 변경의 장수를 죽였으니 이는 무슨 도리인가?” 라고 말하고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나라의 서쪽 변경을 침공하였다. 왕이 겸손한 말로 사과하자 그들이 돌아갔다.⁷²⁾ 『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왕 삼사년조

널리 알려진 고구려 변장 살해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본서기』 웅략천황 8년조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신라왕은 고려가 거짓으로 지켜주는 것을 알고는 사자를 급히 보내어 나라사람들에게 “사람들이여 집안에서 기르는 수탉을 죽여라”라고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는 나라 안에 있는 고

72) 『三國史記』新羅本紀 訥祗王 三四年; 三十四年 秋七月 高句麗邊將 獵於悉直之原 何瑟羅城主三直 出兵掩殺之 麗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 修好至歡也 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 乃興師 侵我西邊 王卑辭謝之 乃歸.

려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⁷³⁾ 『일본서기』, 권일사 웅락천황 팔년 춘
이월

이 때는 신라 소지마립간 재위 연간이다. 그 결과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동해안 지역에서 상대적 우세를 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561년 세워진 창녕 진흥왕 칙경비에는 ‘우추실직하슬라군〔于抽悉直河西阿郡〕사대등’이라는 직함이 보인다. 우추는 울진, 실직은 삼척, 하서는 강릉에 비정되므로 현재 동해안을 따라 울진-삼척-강릉을 순서대로 병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간 이 지역은 세 개의 군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 지역은 고구려나 예 등의 세력으로부터 신라의 북변을 방어해야 할 요충지였다. ‘于抽悉直河西阿郡’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신라인들은 이 세 지역을 분리해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은 군관구적 성격으로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군⁷⁴⁾으로 조직하여 방어의 전초기지로 활용했던 것이다.

한편 울진봉평리 신라비는 중고기 신라의 지방통치 방식을 가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비의 발견으로 신라 국왕의 위상, 부체제, 율령제, 관등제, 지방통치제제, 촌락의 구조 등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질수 있었다. 금석문은 문헌자료의 공백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당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지대하다. 대체로 문헌사학에서는 지증왕이 등장하면서 기왕의 왕호가 중국식 명칭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증왕의 등장과 그 후계자 법흥왕대 들어 병부가 설치되면서 왕권은 크게 신장되었고,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가 완성되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다만 봉평비를 액면 그대로 존중한다면 달리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이를테면 봉평비에는 왕호가 매금왕으로 표현되어 있다. 매금은 마립간의 이칭이며, 왕은 중국식이다. 즉 신라 고유의 왕호와 중국식이 혼재된 복합적인 명칭이 구사되어 있다. 더 나아가 왕도 부명을 관칭하고 있어 그저 부의 대표자 이상의 배타적 권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이 읽혀진다.

특히 1989년 출토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는 울진지역에 대한 당시 신

73) 『日本書紀』卷一四 大泊瀨幼武天皇 雄略天皇 八年 春二月; 於是 新羅王乃知高麗僞守 遣使馳告國人曰 人殺家內所養鷄之雄者 國人知意 盡殺國內所有高麗人.

74) 주보돈, 1979, 「신라 중고의 지방통치조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23:23.

라 중앙정부의 관심이 확인된다. 봉평비를 관류하는 큰 흐름은 법흥왕대의 율령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다.⁷⁵⁾ 따라서 정치체의 실상과 지방 사회의 모습 등이 잘 드러나 있다. 봉평비에 대한 대부분의 그간의 논의는 노인(奴人)문제, 율령의 실체, 비의 성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의 구절이 중핵을 이룬다.

別敎令 居伐牟羅 男弥只 本是奴人 雖是奴人 前時王大敎法 道俠阡
隘尔所界城失火遶城村大軍起 若有者一行爲之 人備土尊王太奴村負共
值五其餘事種種奴人法

거벌모라 남미지는 본래 노인이다. 비록 노인이지만 왕이 전날에 크게 대교법을 따르게 하였다. 길이 좁은 이야계성에 불이 나서 대군이 동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한 자들은 모두 -를 행하여야 -들이 땅을 지키고 왕을 받들게 될지니 태노촌은 불려서 5를 책임지고, 나머지 잡다한 것은 노인들이 옛날에 하던 법대로 처리한다. (울진봉평리신라비)

봉평리비의 두 번째 단락은 국왕과 갈문왕 및 여러 간지들이 의논하여 내린 별교령과 관련된 내용이다. 별도로 교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이야계성(尔耶界城)은 현재 봉평비가 있는 뒷산에 축성된 장산성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축성은 울진지역이 정치적으로 예측된 상태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봉평리비의 뒷부분에는 실화의 책임을 지고 장형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대군이 동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형의 집행은 고작 4명이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불낸 당사자가 아니라 관리 불찰을 들어 촌사인 3명과 그 밖의 1명이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포고를 하면서 국가의 혜택을 언급한다는 점은 대개 그 죄질의 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쓴다. 별교령은 노인법의 상대적인 의미이며 선심을 써서 왕경인들과 법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혜택을 취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6세기 전반 울진지역은 신라 조정이 지

75) 전덕재, 2000, 「6세기 초반 신라 6부의 성격과 지배구조」, 『韓國古代史研究』 17:266 - 275.

李泳鎬, 1999, 「蔚珍鳳坪新羅碑의 內容과 性格」, 『韓國古代社會와 蔚珍地方』 -국보 제242호蔚珍鳳坪新羅碑발견10주년기념학술대회는총-. pp. 59 - 64. 울진군.

방민의 통제와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나 교화와 목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 볼 수 있다. 종래 대교의 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도 대교를 따르게 한 점, 별교령의 핵심인 부공치오와 종종 노인법의 경제적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죄질로 보면 엄단하고 싶지만 유교적 정치지향과 본격적인 삼국 쟁패의 길목에서 이들은 신라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엄벌로 일관할 수 없었던 속사정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울진지역의 지배세력에게는 일종의 패널티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상황은 고고학적으로도 확인이 된다. 덕천리 고분군 4지점의 경우 7단계 가운데 4단계는 6세기 전반의 늦은 단계로 울진봉평리신라비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5세기중엽이후 거의 정점을 찍던 부장품의 양상이 이 시기가 되자 돌연 고분군의 조영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버린다. 기존의 부장품들을 선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공여가 거의 단절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오히려 신라는 이러한 반란의 여지를 없애버리고, 거점에 부담을 타지역으로 돌렸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꾸준히 동해안지역의 안정을 꾀하면서 6세기 무렵 변방의 중요 지역 12개소에 축성사업을 단행하였고, 삼척에 실직주, 이사부를 실직군주에 임명하는 한편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진흥왕대에 이르면 안변에 비열홀주의 설치, 가야의 정벌, 단양적성의 공략, 북한산비, 마운령, 황초령비 등을 건립하게 된다. 이러한 영토확장의 전초기지로서 울진의 지정학적 위치는 신라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발굴 조사된 울진 덕천리 고분군의 분묘와 출토유물을 통해서 신라가 동해안 지방의 경영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덕천리 고분군은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대에 조영된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현재까지 울진지역에서 발굴된 단위면적으로는 최대 규모의 고분유적이다. 이 고분군은 성립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삼국~통일신라시대 분묘 371기(성격불명 26기, 봉토분 5기 포함)가 조사되었다. 분묘는 시기를 달리하는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토광묘, 횡구식 석실묘, 횡혈식 석실묘, 옹관묘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본고에서는 묘제의 특징과 부장품의 분석을 통해 매장상의 특징과 정치세력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출토된 신라 토기를 중심으로 덕천리 고분군의 조영연대를 통해 축조연대는 5세기 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출토유물 또한 토기류, 철기류, 옥석류 등이 다양하다. 부장품, 특히 금동관의 출토로 앞서 발굴된 덕신리 고분군 보다 상위에 집단임을 가늠케 한다.

신라가 동해안 진출과 경영을 위해 울진지역을 해로, 군사적 거점으로 인지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울진 지역은 『삼국사기』에서 2세기 초 신라가 삼척지방까지 진출하였지만 400년 고구려원전을 계기로 고구려군의 주둔과 간접지배를 받게 된다. 5세기 중엽 신라가 다시 동해안지 지역을 수복 하였으며, 6세기 중엽 당시 삼국의 정황상 열세 속에서도 신라는 삼국간의 정세를 이용하여 불리한 상황을 조금씩 타개하면서 동해안을 교두보로 진출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로의 거점으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一 파사이사금 23년 8월조에 보이는 실질곡국과 음즙벌국의 영토분쟁 기사, 안압지 출토 185호 목간, 최근 발견된 울진군 성류굴 ‘경진년명’ 명문에서 보듯이 신라 동해안 경영에 있어 구체적으로 해로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동지지』 권十六 강원도 울진조에 보이는 삼척과 울진의 육로상 이동의 애로의 대안으로 해로를 적기하고 있는 점, 울릉도의 설화에서 보이는 대마도와 울릉도의 해상세력의 해로를 통한 이동, 비록 조선시대이지만 『대동여지』에서 대풍헌이라는 처소를 두고 울진을 바라보고 있는 점 등은 지증왕대 이사부의 울릉도 정복기사와 맞물려 신라가 이 지역에 해로의 거점

으로 인지하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육로뿐 아니라 해로가 중요시 여겨졌음을 시사하며, 바다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신라가 경제권 확보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군사적 거점으로 울진은 동해안을 거쳐 신라 왕경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태백산맥으로 하는 자연 장애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신라와 고구려의 세력이 교집합을 이루는 지역으로 고구려의 남진루트이자 신라의 고구려 방비루트로 볼 수 있다. 고구려 남하의 저지를 위해 삼척이나 울진에서도 차단목을 운영해야만 공격의 힘을 소진시킬 수 있게 되며 바로 울진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지증왕 6년조(505년)기사에서 지역 명칭으로 지방행정을 재편한 것으로 이해되며, 왕경인으로서 지방관으로 파견한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의 동해안 영토 확장 측면에서 동해안 일대의 군사적 거점으로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통일기에 이르면 9주 5소경으로서 울진은 명주에 속했고, 산하에 해곡현이 있다. 현재 발굴조사 된 덕신리 고분군이 해곡현에 비견되며, 울진읍에 해당하는 지역을 덕천리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덕신리에 비해 덕천리 고분군의 위상이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울진봉평리신라비(524)의 발견으로 신라의 지방통치 방식과 경영 방식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울진 지역에 반란이 발생,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포고비의 성격이 강하다. 비가 세워진 6세기 전반 축조되는 고분의 부장품에서는 중앙에서 제공되는 위세품은 단절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것은 울진지역을 정치적으로 예속한 상태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신라는 동해안 지역의 안정을 꾀하면서 6세기 무렵 변방의 주요지역에 12개소의 축성 사업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중앙 진출의 교두보이자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고구려군을 막는 남쪽한계선상의 군사적 거점으로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 덕천리 고분군을 통해서 초축시기와 조영연대·편년 등을 살펴 보고, 이를 통하여 당시의 신라의 동해안 경영으로서 해로의 거점,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울진 지역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조사 중인 읍남리 고분군을 비롯해 문헌과 발굴 자료를 통해 울진지역에 대한 고분문화와 당시 사회상이 더욱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翰苑』
『擇里志』
『高麗史』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2. 단행본

김창겸, 2018, 「신라의 실직국 복속과 지방통치의 추이」. 『신라와 바다』. 서울: 문헌
이기동, 1997, 「于老傳說的 世界」. 『新羅社會史研究』. 서울: 一潮閣
이기동, 1997, 『新羅社會史研究』. 서울: 일조각.
朱甫噉,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서울: 신서원.
이한상 외, 2009, 「영남 동해안 지역의 신라 토기문화」.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pp. 68 - 70.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이희준 외, 2016, 「사로국의 성립과 성장」. 『신라의 건국과 성장』. 영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주보돈, 2002, 『금석문과 신라사』. pp. 91 - 114. 서울: 지식산업사.

3. 연구논문

강봉원, 2012, 「울릉도 고분에 대한 일 고찰」. 『歷史學研究』 48:1 - 35.

- 구문경, 2009, 「영동지역의 신라관과 관식」. 『신라문화연구』 2:181 - 183
- 구자봉, 1998, 「신라의 환두대도」. 『신라문화』 15:22 - 28
- 金恩鏡, 2010, 「新羅古墳 出土 雲母의 性格」. 『한국고고학보』 77:65 - 71.
- 김호동, 2001, 「삼국시대 新羅의 東海岸 制海權 확보의 의미」. 『大丘史學』 65:43 - 81.
- 리순진, 1983,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나무곽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8:99 - 158.
- 박승규, 2010, 「가야토기 양식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방용안, 1987, 「실직국에 대한 고찰」. 『강원사학』 3:51 - 66.
- 서성훈, 2004, 「울진 덕신리 고분군의 역사적 성격」. 안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손정미, 2006, 「동해안지역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심현용, 2008,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과 루트」,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 심현용, 2019, 「울진 성류굴 제8광장 신라 각석문 발견보고」, 『목간과 문자』, 22: 2019년 6월 30일 발간예정
- 연민수, 1999, 「고대 한일관계와 울진지방」. 『한국고대사회와 울진지방』. pp. 113 - 118. 대구: 한국고대사학회
- 오광섭 외, 2015,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복안(覆顔)과 청동제유물의 재검토」. 『야외고고학』 22:5 - 21.
- 尹龍九, 1990,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歷史學報』 126:9.
- 윤정희, 1997, 「소가야토기의 성립과 전개」, 경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도학, 1987, 「신라의 북진경략에 관한 신고찰」. 『경주사학』 6:23 - 41.
- 이인숙, 2018, 「4~6세기 포항·울진 지역의 고분 문화」, 『한국고대사연구』 93:29-59.

- 이한상, 2003, 「동해안 지역의 5~6세기 신라분묘 확산양상」. 『영남 고고학』 32:35 - 39.
- 이형우, 1993, 「사로국의 동해안 진출」. 『건대사학』 8:25 - 46.
- 주보돈, 1979, 「신라 중고의 지방통치조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23:23.
- 주보돈 외, 2011,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신라의 동해안 경영」.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한국 금석문』, 울진봉평신라비 전시관 개관기념 학술대회 논총:66. 서울: 울진군 · 한국고대사학회.
- 李相洙, 1993, 「嶺東地方의 新羅古墳研究」. 關東大學校 大學院:史學科 碩士學位 論文.
-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上) -‘三韓考’ 제3부-」. 『韓國學報』 2:35 - 39.
- 최병운, 1982, 「서기 2세기경 신라의 영역확대」. 『전북사학』 6:17 - 52.
- 최종래, 2007,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과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5세기 분묘자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함순섭, 2012, 「신라 수지형대관의 전개과정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穴澤和光 · 馬目順一, 1987, 「古新羅墳丘墓出土の環頭大刀」. 『朝鮮學報』 122:168 - 202.
- 鮎貝房之進, 1972, 『雜攷 · 新羅王號攷 · 新羅國名攷』. pp. 346 - 347. 東京: 國書刊行會.

4. 발굴보고서

-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4, 『울진 덕신리유적』.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4,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
-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2, 『梁山 下北亭遺蹟』.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울진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지도위원회 자료」.
- 안동대학교박물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3, 『울진 매화리 고분 발굴

조사보고서(울진 덕신리 유적 시굴조사)』 .
순천대박물관, 2002, 『光陽龍江里遺蹟 I -龍江里宅地開發地區-』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6, 『高興訪土遺蹟』 .
全南文化財研究院, 2015, 『寶城白鶴 堤遺蹟』 .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 울진군』 .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8, 『양산명동 근린공원 개설부지내 약보고서』 .

5. 보도자료

울진군 정책기획관 홍보팀, 2019, 5, 23, 울진군 보도자료.

6. 참고자료

국립경주박물관, 2001, 『新羅黃金』 ,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
다음카카오, <https://map.kakao.com/>.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德川里新羅墓群.Ⅱ』 .

울진 덕천리 고분군으로 본 신라의 동해안 경영

朴 命 顯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化財學科 文化財學 專攻

指導教授 姜 奉 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울진지역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고분군을 검토하였다. 단위규모로서는 최대로 발굴된 덕천리 고분의 고고자료와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울진지역의 정치체의 향방과 신라의 동해안 경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울진 덕천리고분군은 5~7세기 까지 고분이 축조 되었으며 목곽묘, 석곽묘, 횡구식 석실묘, 횡혈식석실묘로 묘제가 변천하였다. 출토된 유물로는 금동관을 비롯한 위세품과 토기류, 무기류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금동관의 출토로 환두대도가 출토된 덕신리 집단 보다는 상위의 청지체 집단이다. 『삼국사기』 비롯한 기존의 문헌자료와 울진봉평신라비, 울진 성류굴 내 명문 등은 울진 덕천리 고분군의 축조 및 부장되는 위세품과 께를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서서히 이행되어 가는 신라의 각 지역에 대한 지배방식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울진지역을 통한 동해안 경영은 영토의 확장의 측면에서 해로와 군사적 거점으로서 인지하면서 진출하였다는 것에 주목해 보았다. 『삼국사기』 실직곡국과 음즙벌국의 영토분쟁, 울진 성류굴 내 ‘경진년’명의 명문 자료는 영토 이상의 해로(강역)로서 중요성을 인식함을 시사한다. 군사적 거점으로 울진 지역은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이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

으로 고구려가 남하하는 남진루트이자 신라의 고구려 방비루트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변장살인사건, 『일본서기』 웅락천왕 8년조 기사 등은 동해안 진출을 위해 군사적 거점으로서 이 지역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상으로 울진 덕천리 고분을 통해 당시의 신라의 동해안 경영으로서 해로와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당시 사회상을 조망해 보았으며하여 울진 지역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신라, 고구려, 울진, 고분, 덕천리, 위세품, 해로, 군사, 울진봉신라
평비, 경진년

Looking at Silla's Rule of the Eastern Coast Through Tombs of Deokcheon-ri in Uljin

Myunghyun Park

Gyeongju University

Cultural Studies

Supervisor Bongwon Kang

This paper examines the tombs found in the Ulin region, dating back to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Based on the archaeological and literary findings of the Deokcheon-ri tombs - the largest group of its kind - the paper looks at the political structure of Uljin region and Silla's rule over the Eastern Coast of the peninsula.

The tombs of Deokcheon-ri in Uljin were built between the 5th and 7th Centuries in variety of forms, such as wooden graves, stone graves, three-walled stone chambers and caved stone chambers. The variety of form suggests that the burial rituals have changed over the centuries. Among the excavated artefacts were those that symbolized power, such as a golden crown, as well as potteries and weaponries. Through the excavation of the golden crown, it became discernable that those who lived in Deokcheon-ri formed a higher political group than that of neighboring Deokshin-ri, where swords were excavated.

Literary findings such as 'Samguksagi', and other artefacts such as the Silla Stone Monument in Bongpyeong-ri and engravings inside

Seongnyu cave, all point to the same theory as the artefacts of power that have been constructed or buried within the tombs of Deokcheon-ri. This seems to be related to the gradual changes that were being made to the way Silla ruled each region.

The paper focuses on Silla's rule of the eastern coast with Uljin region as the strategic center for maritime and military routes that would facilitate the expansion of its territory. The territorial conflict between the small nations of Siljik and Eumjeupbul that is documented in 'Samguksagi', and the engravings of the year of Gyeongjin within Seongnyu cave in Uljin imply the importance of the region as the base for maritime routes. As a military base, Uljin was strategically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Goguryeo and Silla and formed a part of Goguryeo's southern expansion route as well as Silla's defense route against Goguryeo.

The assassination of Goguryeo general in 'Samguksagi', and 『Chronicles of Japan』 amongst others, prove that the area was recognized as a military base for the expansion to the eastern coast.

Thus the pap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Uljin's society as a maritime and military base for Silla's rule of the eastern coast through the tombs of Deokcheon-ri.

Keywords: Silla, Goguryeo, Uljin, tombs, Deokcheon-ri, maritime, military, Silla Stone Monument, Year of Gyeongjin